

碩士學位論文

# 《型世言》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秦 恩 珠

2001年 12月

# 《型世言》研究

指導教授 趙 成 植

秦 恩 珠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12月

秦恩珠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

委 員

---

委 員

---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1年 12月

# 目 次

I. 序 論 .....	1
1. 既存研究概況 .....	1
2. 研究目的 및 研究方法 .....	5
II. 《型世言》概觀 .....	7
1. 作者 및 評者 .....	7
2. 出版年代 .....	11
3. 《型世言》창작배경 .....	14
1) 정치·사회적 배경 .....	15
2) 경제·문화적 배경 .....	17
3) 문학적 배경 .....	18
III. 《型世言》의 주제 .....	22
1. 勸善類 .....	25
1) 忠 .....	25
2) 孝 .....	30
3) 婦德 .....	39
4) 義 .....	47
2. 勸戒類 .....	55
1) 貪財 .....	55
2) 貪色 .....	65
3) 其他 .....	72



3. 異聞類 .....	74
IV. 《型世言》의 특색 .....	80
1. 형식적인 측면 .....	80
1) 題目 .....	80
2) 詩詞의 삽입 .....	82
3) 回前 서문과 回末評 .....	88
2. 내용적인 측면 .....	93
1) 明代사회의 반영 .....	93
2) 愛情故事 .....	98
3) 작자의 직접적인 개입 .....	100
V. 結論 .....	103
【參考文獻】 .....	106
【中文抄錄】 .....	111



# I. 序 論

## 1. 既存研究概況

《型世言》은 “三言” “兩拍”과 동일한 시기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sup>1)</sup>되는 明末의 擬話本 短篇小說集으로 1987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型世言》의 존재에 대해서는 王重民이 1939년부터 1947년까지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중국 선본 서적을 감정할 때 《皇明十六名家小品》에서 “刊型世言二集，徵海內異聞”이란 원고모집 광고를 보고 알았지만 그 서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型世言》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型世言》의 일부 고사가 《型世言》의 異本으로 알려진 《幻影》과 《三刻拍案驚奇》<sup>2)</sup>에 전승되었

- 
- 1) 馮夢龍의 《喻世明言》은 1620-1621년경, 《警世通言》은 1624년, 《醒世恒言》은 1627년에 각각 출판되었으며, 凌濛初의 《拍案驚奇》는 1628년, 《二刻拍案驚奇》는 1632년에 출판되었다. 《型世言》은 대략 1632년경에 출판되었을 거라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고 II장을 참고
  - 2) 현재 알고있는 《幻影》이라는 단편소설집은 모두 殘本이며, 全書가 몇 권인지는 정확치 않다. 후에 이는 《三刻拍案驚奇》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으나 이 역시 殘本만 현존한다. 이들을 서로 보완하여 보면 모두 8권 30회이며, 그 중 제15회는 모두 소실되어 실제로는 29회이며, 각 회는 한 故事로 이루어져 있다. 《型世言》 발견이후 이 29회는 모두 《型世言》에서 취해져서 대부분 回目을 바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 소실된 제15회는 바로 《型世言》 제22회 〈任金剛計劫庫, 張知縣計擒盜〉이다. 《三刻拍案驚奇》의 印版은 《幻影》의 印版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書商은 단지 《幻影》의 舊版에 이름을 고치고 書名이 있는 페이지만 덧붙였을 뿐이다. 따라서 《三刻拍案驚奇》의 8권 29회는 바로 《幻影》의 8권 29회이다. 그리고 《三刻拍案驚奇》의 29회의 내용은 《型世言》과 동일하며, 다만 《型世言》에 보이는 각 회 앞의 小序와 回末 평어, 眉批가 없으며 回目과 回次가 바뀌었을 뿐이다. 각 版의 字體와 圈點의 위치도 동일하며 심지어는 錯字도 같다. 따라서 《三刻拍案驚奇》의 판본은 《幻影》의 舊版을 이용한 것이고, 《幻影》의 판본은 바로 《型世言》의 原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權寧愛, 《型世言研究》, 東吳大學, 中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1993. 6 p33~50)

기 때문에 《型世言》에 관한 연구는 대개 이들 서적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서적에 기록된 일부 고사들만 가지고는 작품의 전모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板本 고증이나 作者 및 작품 年代를 추측하는 경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의 시작은 鄭振鐸에게서 비롯되었다. 그가 소장하고 있던 明刊本 《幻影》<sup>3)</sup>의 殘卷은 7권 낙질권으로 표지에 “夢覺道人·西湖浪子 輯”이라 적혀 있었으나 그 작자와 출판연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27년 파리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拍案驚奇二集》<sup>4)</sup>의 총34회 중 제1회에서 제10회까지는 凌濛初의 《二刻拍案驚奇》에서 취한 고사이며 나머지 중 일부 故事는 《幻影》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비슷한 시기에 《三刻拍案驚奇》를 소장하게 된 馬廉은 목록 30회중 남아있는 본문 27회에서 앞 7회는 《幻影》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리하여 이 두 소장가는 《幻影》이 《三刻拍案驚奇》의 實名임을 고찰하고 《三刻拍案驚奇》는 대략 40회로 현존하는 것은 殘本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 후 30년대 말 劉修業이 프랑스 파리 도서관에 소장된 《拍案驚奇二集》

---

3) 鄭振鐸은 이 판본에 書名이 빠져 있으므로 版心 上端에 “幻影”이라 적힌 것을 근거로 하여 서명으로 삼았다. 한편, 歐陽代發은 《話本小說史》, 武漢出版社, 1994. 5, p304~305에서 ‘一書二名’의 현상(예를 들면, 《歡喜冤家》을 《貪歡報》, 《鶯鶯針》을 《覺世棒》, 《十二樓》을 《覺世名言》이라 하였다.)이 擬話本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삼아 《幻影》도 《型世言》에서 개명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型世言》의 또 다른 書名이라 주장했다.

4) 《拍案驚奇二集》은 “二刻拍案驚奇別本” 혹은 “別本二刻拍案驚奇”라고도 불리며, 현재 두 部가 전해진다. 그 하나는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日本 九州 大分縣 佐伯市 佐伯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총 34회 중에서 앞의 10회는 《二刻拍案驚奇》에서 취해진 것이며, 후반부 24회는 모두 《型世言》에서 취한 것이라는 것이 《型世言》이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그러나 《型世言》에 보이는 回前 서문과 眉批가 삭제되었다.(劉美源, <型世言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5, p43참고)

을 열람하다가 제11회에서 제30회를 고찰하여 그중 15회가 《幻影》에서 나왔음을 알고 북경대에 소장하고 있던 《三刻拍案驚奇》와 비교하면서 최초로 《型世言》故事의 來源에 대해 연구하였다.<sup>5)</sup>

1987년 2월 張榮起는 北京大出版社에서, 곧이어 3월에는 宋楊冰·趙珩·海波가 燕山出版社에서 《三刻拍案驚奇》 교점본을 출판하여, 板本과 作者 및 作品年代에 관해 연구하였다.<sup>6)</sup> 胡從經은 일본 佐伯文庫의 도서에서 《拍案驚奇二集》의 殘本을 보다 雨侯(評者인 陸雲龍)의 評語가 매 편의 뒤에 있는 것을 보고, 日本 所藏本 《皇明十六家小品》 卷首 癸酉년에 쓴 陸雲龍의 序文을 토대로 하여 《型世言》 初集이 陸雲龍의 作임을 논정하며 崇禎 6년(1633년) 이전에 간행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拍案驚奇二集》은 明代에 인쇄된 것으로 《型世言》 原作에 가장 근접한 板本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sup>7)</sup> 그후 夏咸淳은 《型世言》의 作者 陸人龍과 評者인 陸雲龍의 생애를 연구하였다.<sup>8)</sup>

그러나 아직 出現하지 않은 《型世言》에 대해 그 동안 진행되었던 연구들은 단지 板本の 考證 및 作家등에 관한 추측에 불과했다. 《型世言》에 관한 연구는 1987년 陳慶浩 선생이 서울대학교 소장 규장각 도서에서 《型世言》을 발견하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 
- 5) 劉修業 著, 〈《拍案驚奇二集》二十四卷〉, 《古典小說戲曲叢考》, 北京作家出版社, 1958.5, p48~57. 劉美源, 〈《型世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5 p2 재인용
  - 6) (明)夢覺道人·西湖浪子 輯, 張榮起 整理, 《三刻拍案驚奇》, 北京大學出版社, 1987.2  
(明)夢覺道人·西湖浪子 輯, 宋楊冰·趙珩·海波 點校整理, 《三刻拍案驚奇》, 北京燕山出版社, 1987.3
  - 7) 胡從經, 〈東瀛訪稗錄-中國小說史料的新發見(之二)〉, 《明報月刊》, 1988. 7. p92~95, 朴在淵, 〈《型世言》 研究〉, 《中國學論叢》 제4집, 충청중국어학회, 1995.4 p97 재인용
  - 8) 夏咸淳, 〈陸雲龍考略〉, 《明清小說研究》, 1988年 第4期, p83~89

되었다. 陳慶浩는 1992년 臺灣 中央研究院 中國文哲研究所에서 이를 影印 出版<sup>9)</sup>하고 계속하여 《型世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sup>10)</sup>

한편 우리나라 朴在淵교수도 樂善齋本 소장 《型世言》 번역본을 연구<sup>11)</sup>하다 원본이 奎章閣에 소장되었음을 알고, 奎章閣本 《型世言》의 校注本을 간행하였고<sup>12)</sup> 중국에서도 이와 거의 동시에 교점 작업이 이루어졌다.<sup>13)</sup>

이런 가운데 權寧愛는 《型世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sup>14)</sup>, 金榮華는 《幻影》·《三刻拍案驚奇》·《拍案驚奇二集》이 《型世言》에서 파생된 과정과 이들의 작품연대에 대해 연구하였다.<sup>15)</sup> 金

---

9) 陸人龍 編撰 陳慶浩 導言, 《型世言》上中下 3冊, 中央研究院 文哲研究所, 臺北, 1992. 11

10) 陳慶浩, <一部佚失了四百年的短篇小說集《型世言》的發見和研究>, 《中國文哲通訊》第2卷 第4期, 1992. 12. 이 글은 영인본의 導言을 축약한 것으로 최용철 교수에 의해 <《型世言》-4백년간 묻혔던 단편소설집>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中國小說研究會報》제13호(1993.3)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북경에서 열린 '93 中國古代小說 國際研討會에서 발표한 논문 <《型世言》研究補論>이 朴在淵에 의해 번역되어 《中國小說研究會報》제15호(1993.9)에 게재되었다.

11) 朴在淵, <낙선재본 《型世言》에 대하여>, 《清河金炯秀博士華甲祈念語文論叢》, 東國大, 螢雪出版社, 大邱, 1992. 9. 《文學遺產》1993年 第3期에 <韓國所見奎章閣藏本《型世言》>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실렸다.

12) (明) 陸人龍 著 朴在淵 校注, 《型世言》, 春川 江原大學校出版社, 1993. 7

13) 齊裕焜·陳節의 海峽文藝出版社本(1993.6)·山東文藝出版社本(1993.7)·北京燕山出版社本(1993.8), 覃君의 中華書局本(1993.7), 雷茂齊·王欣의 巴蜀書社本(1993.12), 陳慶浩의 江蘇古籍本(1993.8)·作家出版社本(1994.3)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朴在淵, <《型世言》연구>, 《중국학논총》제4집, 충청중국학회, 1995. 4, p98 재인용)

14) 權寧愛, <型世言研究>, 臺灣 私立東吳大學 中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1993. 6

15) 金榮華, <《型世言》及《三刻拍案驚奇》>, 《華岡文科學報》第19期, 1993.8. <《型世言》考略補述>, 《華岡文科學報》第20期, 1995.4.에서는 《型世言》의 來源故事 및 《幻影》의 作品年代에 대해 연구하였다.

孝眞은 《型世言》에 등장하는 80여명에 달하는 인물들을 분석하고, 정치사회·도덕윤리사상·종교 등 3방면으로 주제를 나누어 연구하였다.<sup>16)</sup> 그리고 劉興漢<sup>17)</sup>과 李炫姪<sup>18)</sup>은 《型世言》의 체재를 분석하고 체재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 2. 研究目的 및 研究方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의 《型世言》에 관한 연구는 주로 板本이나 作者·評者 및 作品年代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몇몇 연구자들이 《型世言》의 주제 및 明末의 시대상황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型世言》의 구체적인 작품을 분석하여 주제를 살피고 《型世言》의 특색을 연구하는 경우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필자는 《型世言》 총 40회 故事의 주제를 '勸善類', '勸戒類', '志怪類'로 나누어 살핀 후에 《型世言》의 특색을 정리하여 《型世言》의 창작의도와 문학사적 위치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型世言》의 作者 및 評者와 作品年代 및 창작배경 등 《型世言》의 개괄적인 면을 살펴본 후, 《型世言》 40회의 개개 작품을 분석하고 《型世言》의 작자인 陸人龍의 형이며 이 책의 평자로 알려진 陸雲龍의 回前 서문과 回末評을 통하여 작자의 창작의도 및 주제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인 陸雲龍은 明末의

---

16) 金孝眞, <《型世言》人物·主題·評點之研究>, 私立輔仁大學 中國文學系 碩士學位論文, 1996.6

17) 劉興漢은 《型世言》의 체재를 忠臣故事(5종), 孝子故事(5종), 婦德故事(3종), 公安故事(3종), 靈怪故事(4종), 社會(16종)으로 분류하였다.<《型世言》與“三言”的比較研究>, 《社會科學戰線》제4기, 1997

18) 李炫姪, <《型世言》題材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12

그는 《型世言》의 체재를 유가사상, 사회제도, 역사적 사건, 남녀애정, 靈怪神仙, 發跡變態로 구분하였다.

유명한 출판가로서 그의 사상은 동생인 陸人龍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에 回前 서문과 回末評은 《型世言》首卷의 소실로 인해 작자의 편찬의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자의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型世言》이 갖는 특색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고는 覃君 校點 中華書局(1993.7) 《型世言》을 저본으로 삼고 朴在淵 校點 江原大本(春川 江原大學出版社, 1993. 7) 《型世言》, 陸人龍 著 《三刻拍案驚奇》<sup>19)</sup>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문은 覃君의 中華書局本을 따랐다.



---

19) 陸人龍著, 《三刻拍案驚奇》, 華夏出版社, 1998.2

## II. 《型世言》 概觀

### 1. 作者 및 評者

全稱 《崢嶸館評定通俗演義型世言》인 《型世言》은 明末의 다른 소설집과는 달리 每回の 回目다음에 “錢塘陸人龍君翼甫” “錢塘君翼陸人龍” “錢塘陸人龍” “錢塘陸君翼”등으로 이름하고 “演” “演義” “輯” “撰” “編”<sup>20)</sup>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예, 제1회의 錢塘陸君翼演), 이로써 《型世言》의 作者는 바로 陸人龍이며, 그의 자는 君翼, 錢塘(지금의 浙江 杭州)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6회 <內江縣三節婦守貞, 成都郡兩孤兒連捷>에 있는 陸雲龍의 “題詞”에 “卓哉三夫人, 知不辱吾弟之筆(세 부인은 정말 훌륭하여, 내 동생의 붓을 욕되게 하지 않음을 알겠구나)”이란 구절에서 그는 또한 명말 杭州의 유명한 출판가인 翠娛閣主人 陸雲龍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형 陸雲龍에 비해 陸人龍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型世言》 제16회 雨侯(陸雲龍의 자)의 回後評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을 뿐이다.

20) 陳遼는 <《型世言》 研究三題>, 《杭州大學學報》, 24卷1期, 1994. 3, p13~14에서 《型世言》의 매 편에 ‘撰’, ‘編’, ‘輯’, ‘演’, ‘演義’이라 서명한 것을 보고 《型世言》 작품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撰’은 陸人龍이 직접 창작한 것으로 제8회와 제32회이다. ‘編’은 陸人龍이 고치고 가공해서 재창작한 것으로 제23회, 제19회, 제26회이다. ‘輯’은 원래 다른 사람의 작품을 陸人龍이 《型世言》에 옮겨 놓은 것으로 제2회, 제6회, 제10회, 제18회, 제30회, 제34회, 제38회, 제40회 등 모두 9편이다. ‘演’ 혹은 ‘演義’는 陸人龍이 역사고사·인물전기·민간전설을 부연하고 자세히 진술하여 그 뜻을 확대한 것으로 제1회, 제7회, 제13회, 제14회, 제15회, 제16회, 제17회, 제20회, 제21회, 제22회, 제24회, 제25회, 제27회, 제28회, 제29회, 제33회, 제35회, 제36회, 제37회, 제39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9회, 제12회 등 모두 26편이다.(李炫姪, <《型世言》 題材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12 p7~8참고)

나의 생모는 나와 누이, 아우 등 모두 다섯을 낳으셨다. 그러나 嫡母 倪씨는 우리를 친자식처럼 대하며 우리들이 성인이 되도록 보살펴주었다. 두 어머니는 또 갖은 고생을 하시며 미망인으로 불리신 지 20여 년이 되었다. 孟母가 세 번 이사를 하고 짜던 베를 자르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셨고, 陶侃의 어머니 湛씨가 자기 머리를 잘라 손님을 접대하고 거적을 잘라 말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주셨다.

予生母身生子兄弟凡五人，而嫡母倪悉視猶己出，各觀其成人。兩母又茹荼飲苦，稱未亡者二十余年。三遷斷機不殊孟，截發剝薦不殊陶。

이로써 陸氏 형제의 아버지는 비교적 일찍 돌아가시고, 두 어머니가 모진 고생을 하며 그들 형제를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陸人龍은 또 “平原孤憤生”이란 필명으로 《遼海丹忠錄》이란 역사소설을 저술하였다.<sup>21)</sup> 이는 萬曆 17년(1589)부터 崇禎 3년(1630) 봄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는데, 遼東에서의 明과 後金과의 전쟁을 재연하여 明이 군사적·정치적으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時事에 대한 작자의 관심과 “孤憤”을 표현한 것이었다.<sup>22)</sup> 이밖에 崢霄

21) 歐陽健은 〈翠娛閣主人序〉에 있는 “顧鑠金之口，能死豪傑于舌端；而如椽之筆，亦能生忠貞于毫下，此予弟《丹忠錄》所繇錄也(쇠를 녹인 입을 돌아보니 혀끝으로 호걸을 죽일 수 있다.; 서까래의 붓과 같이 또한 붓끝 아래에서 충정을 생기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내 아우가 《丹忠錄》의 요역을 기록한 까닭이다)”를 근거로 하여 이 책이 陸雲龍의 동생이 지은 것이라 추측했으며 (歐陽健, <歌慷慨《丹忠錄》-《遼海丹忠錄》初探>, 《寧夏教育學院學報·社料版》, 1988, p246-252) 《型世言》의 발견으로 인해 확실해지게 되었다.(劉美源, <型世言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5 p9 재인용)

22) 그 내용을 보면, 동북지역에서 明이 대패하자 하급군관으로 있던 毛文龍이 이백 명도 안되는 병력으로 鎮江(지금의 丹東)을 습격하여 조야를 놀라게 하였다. 후에 平遼總兵으로 발탁되었으며 明 군대가 패하자 그가 거느리는 일지대는 조선의 皮島(일명 椴島)로 피신하여 요새를 구축, 군사가 3만여명까지 불어나 적의 배후에서 누루하치를 괴롭혔다. 누루하치 부자의 귀순 요구도

館의 출판에도 참여하여 《翠娛閣評選行笈必攜二十一卷》중 <格言>의 序를 썼으며 <詞菁>과 <小札簡> 卷1을 較訂하였다. <四六儷> 권1, 2는 모두 陸人龍 參閱로 되어 있다.<sup>23)</sup>

《型世言》의 매회 앞에 있는 서문과 回末의 총평을 통하여 《型世言》의 평자는 陸雲龍이며 그의 자는 雨侯, 호는 翠娛閣主人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浙江 錢塘사람으로 생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적모 倪씨와 생모의 부양으로 자랐으며 집안의 장남이었을 것이다. 어려서 매우 가난하였지만, 학문을 그만두지 않았으며 빈곤할수록 책을 가까이 하였다. 詩才가 뛰어나고 해박했으나 과거에 쓰이는 八股文을 “雕蟲小道”라고 여겨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아가려고 했으나 20여년 동안 계속 낙방하자 출판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崢霄館을 열어 출판에 전념하면서 생계를 도모하고 기개를 기탁하였다. 그는 ‘翠娛閣’ 또는 ‘崢霄館’의 이름으로 많은 책들을 편찬함으로써 杭州의 유명한 編輯者 및 出版家가 되었다.<sup>24)</sup>

많이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부단히 적을 습격하여 後金의 西進을 막았다. 그러나 明정부와 朝鮮정부에 무리한 군량미를 요구하는 등 외교적인 마찰을 빚은 데다 시기를 받아 상관인 袁崇煥에 의해 여순 쌍도에서 살해당했다. 全書는 毛文龍을 긍정적인 인물로 부각시켜 그의 충성을 예찬하고 元崇煥의 시기와 질투를 질책하였다.(朴在淵, <《型世言》 연구>, 《중국학논총》 제4집, 충청중국어학회, 1995.4 p102)

23) 陳慶浩, <《型世言》研究 補論>, 《中國小說研究會報》 제15호(1993.9), 중국 소설연구회, p4

24) 그가 출판한 서적을 출판순서에 따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合刻繁露太玄大戴禮記三卷 陸雲龍天啓五年(1625)序 崢霄館刊本
- 禪真後史十卷六十回 崇情己巳(元年, 1628)翠娛閣主人序 崢霄館刊本
- 崢霄館評定出像通俗演義魏忠賢斥奸書四十回 崇禎元年(1628)鹽官木強人·吳越草芥臣等 崢霄館刊本
- 新鐫出傷通俗演義遼海丹忠錄八卷四十回 崇禎重午翠娛閣主人敘刊本

陸雲龍은 또한 대부분의 正統文人들처럼 功名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시의 부패한 과거제도로는 도저히 벼슬길로 나갈 수 없어 생계를 위해 출판업에 종사하였지만 여전히 國事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그가 출판한 서적에 기탁하였다. 특히 《翠娛閣近言》의 <剿撫議> <制科策> <謹刑論> <言路策> <斷刑策> 과 《型世言》의 매회 앞 서문과 回末評 등은 그의 이러한 時事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sup>25)</sup> 이

- 
- 翠娛閣評選行笈必攜二十一卷 丁允和序崇禎辛未(四年, 1631) 陸雲龍序刊本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詩最二卷 詞菁二卷 文韻四卷 文奇四卷 游記一卷 四六儷二卷 小札簡二卷 이상 陸雲龍序, 格言一卷 陸人龍序, 清語一卷 陸樹敏序
  - 崢霄館評定通俗演義型世言十卷四十回加首卷陸雲龍序刊本
  - 皇明十六家小品三十二卷 癸酉(崇禎6年, 1633)何偉然·丁允和·陸雲龍序 崢霄館刊本. 이 책 안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매 책 앞에는 崇禎5年(1632) 翠娛閣 主人의 서문이 있다.  
屠赤水先生小品 徐文長先生小品 李本寧先生小品 董思白先生小品  
湯若士先生小品 虞德園先生小品 文太清先生小品 黃貞父先生小品  
王季重先生小品 鍾伯敬先生小品 袁中郎先生小品 曹能始先生小品  
張侗初先生小品 陳明卿先生小品 陳眉公先生小品 袁小修先生小品  
기록이 보이는 것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翠娛閣評選袁小修先生小品二卷
  - 翠娛閣評選明十四家小品二十八卷
  - 皇明八大家十六卷
  - 鍾伯卿先生選注四六雲濤 癸酉(崇禎 6年, 1633) 陸雲龍序 文萃堂刊本
  - 翠娛閣近言 文三卷 詩詞一卷 陸雲龍自題及小引 崇禎七年(1634)刊
  - 翠娛閣評選明文歸初集三十四卷 崇禎刊
  - 翠娛閣評選鍾伯卿先生合集 文十一卷 詩五卷 崇禎丙子(9年, 1636) 許彥·陸雲龍序刊本
  - 明文奇艷二十卷 崇禎九年(1636) 李清序及陸雲龍序刊本
  - 李映碧公餘錄二卷 崇禎十年(1637) 陸雲龍序刊本

이밖에도 누락된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陳慶浩, <《型世言》研究補論>, 《中國小說研究會報》 제15호, 1993.9. p.6)  
25) 陳慶浩, <《型世言》研究補論>, 《中國小說研究會報》, 제15호, 1993. 9. p5  
참고

와 같은 陸雲龍의 의식있는 출판경향은 동생인 陸人龍에게도 영향을 끼쳐 通俗小說을 통해 明末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폭로하고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型世言》의 回前 서문과 回末評은 비록 형인 陸雲龍이 쓴 것이지만 작자 陸人龍의 의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2. 出版年代

1987년에 발견된 明版 《型世言》은 총 11冊으로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集部·小說類》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崢霄館評定通俗演義型世言

陸雲龍(明)演 明版本 十一冊(零本) 木刻本 25×16.2cm

版心書名：型世言 共12冊中缺1冊

이상에서 《型世言》은 “총 12冊이었으나 그 중 1冊이 빠져있다”고 했으나 이는 後人이 새로 장정한 것으로 원래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이 4회를 한 卷으로 하여 每卷의 머리에 “崢霄館評定通俗演義型世言卷之□(卷次)”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원본이 4회를 1권으로 하여 전체 40회를 10권으로 엮었던 것을 後人이 새로 편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型世言》에는 總序와 總目이 없는데, 그것이 원래부터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缺1冊”이라 한 것은 바로 總序·總目·插圖가 실려있던 首卷이 아닌가 여겨진다.<sup>26)</sup>

26) 陸雲龍은 평소 자신이 출판한 書籍 卷頭에 직접 序文을 쓰는 습관이 있었으며, 동시기에 출판된 “三言” “二拍”에도 序文·總目 및 插圖가 함께 한 冊을 이루어 本文의 앞에 놓였음을 볼 때, 《型世言》도 원래 序文·總目·插圖가

總序, 總目, 插圖가 실려있는 首卷이 상실되어 《型世言》이 언제 출판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型世言》 40회의 소설이 明代 사회 전반을 반영하고 있고 당시 역사적인 사건, 역사 인물 및 傳說 등을 다루고 있어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型世言》 제25회 <凶徒失妻失財 善士得婦得貨>에서는 崇禎 元年(1628) 7월 23일, 浙江 海寧縣 지방이 태풍과 해일의 피해를 입은 참상을 기록하고 있다.

뜻밖에 崇禎 원년 7월 23일 각 지역에서 세찬 바람과 폭우가 쏟아져 省都와 각 府縣의 산림이 風害를 입었으며, 담장이 무너지고, 집이 파손되었고, 나무가 뽑히고 모래가 날렸다. 그리고 나무와 돌로 만든 제방이 모두 바람에 무너졌는데, 이 한 두 번의 무너짐으로 인해 산도 쓸려나가고 압사한 사람과 가축이 수도 없이 많았다…

不期崇禎元年七月廿三日, 各處狂風猛雨, 省城與各府縣山林被風害, 坍牆壞屋, 拔木揚砂, 木石牌坊俱是風擺這一兩擺, 便是山崩也跌倒, 壓死人畜數多…(제25회 p340~341)

이 사건은 실제로 발생했던 일로 《明史》 27)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를 근거로 《型世言》은 적어도 1628년 7월 23일 이후에 출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崇禎 6년(1633) 5월에 간행된 《皇明十六家小品》에는 “刊《型世言二集》, 徵海內異聞(《型世言二集》을 간행하고자 하니 세상의 기이한 이야기를 모집한다)”이란 원고모집 공고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崇禎 6년 5월 이전에 《型世言》이 이미 출판되었다는

실린 首卷이 있었으나 소실되고 10책만 남았던 것을 후인이 11책으로 새로 장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陳慶浩, <《型世言》-4백년간 묻혔던 短篇小說集>, 《중국소설연구회보》 제13호, 1999. 3, p52)

27) 《明史》 卷23 : “崇禎元年…秋七月…壬午(二十三日), 浙江風雨, 海溢, 漂沒數萬人”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型世言》은 적어도 崇禎 元年(1628년) 7월 이후에서 崇禎 6년(1633) 5월 이전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明末 宦官이었던 魏忠賢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보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바로 작년에 환관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楊漣·左光斗<sup>28)</sup>를 공격하였는데, 그 중에는 楊漣과 左光斗의 친구가 있었다.; 崔呈秀와 魏忠賢을 탄압하였는데 그 중에는 오히려 崔씨와 魏씨의 친구가 있었다.

就是上年逆璫用事時, 攻擊楊、左的<sup>29)</sup>, 內中偏有楊、左知交; 彈射崔、魏的<sup>30)</sup>, 內中偏有崔、魏知己(제20회 入話 p271)

오늘날 魏忠賢이 三案<sup>31)</sup>으로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일망타진

---

28) 모두 東林黨의 인물로 魏忠賢에 의해 모해를 받고 옥사하였다.

29) 楊漣은 魏忠賢의 24대죄를 들어 탄핵하자 魏忠賢과 非東林派는 東林黨에 대한 대규모의 탄압을 시작하여 天啓 5년 6월에 楊漣, 左光斗, 魏大中이 詔獄에서 죽고, 7월 동림서원, 수선서원이 폐쇄되었으며, 어사 朱宗建, 黃尊素, 應天巡撫 周起元등은 옥사하고 고반룡은 자살하여 동림지도자는 거의 소멸하였다.(<崔晶妍, <明朝의 統治體制와 政治>, 《講座 中國史 IV-帝國秩序의 完成》, p36 참고)

30) 天啓 7년 熹宗이 죽고 毅宗(崇禎, 1628~1644)이 죽고 즉위하자마자 閹黨에 대한 탄핵이 비등하니 魏忠賢은 어쩔 수 없이 자살하여 戮尸되었고 崔呈秀 등 엄당은 삭제되었다.(앞의 책, p37 참고)

31) 三案은 明 神宗 萬曆때에 발생한 “梃擊案”, 光宗 泰昌때의 “紅丸案”, 熹宗 天啓때의 移宮案을 말한다. “梃擊案(1615)”은 神宗이 태자를 책봉함에 있어 長子가 아닌 鄭貴妃의 소생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東林黨 선비들이 이를 비평하자 神宗은 長子인 常洛을 태자로 삼았으나 몽둥이를 든 괴인이 태자궁에 침입하였다. 이를 두고 鄭貴妃가 태자를 암살하려는 음모라며 진상을 밝힐 것을 주장하는 東林黨과 非東林黨사이의 분쟁이 일어났다. “紅丸案”은 泰昌 원년 神宗이 죽고 光宗(泰昌, 1620)이 즉위하자 곧 이질을 앓았는데 鴻臚侍官 李可灼이 준 紅丸을 먹고 재위 1개월 만에 급사한 사건이다. “移宮案”은 光宗의 장자 熹宗(天啓, 1621~1627)이 즉위하자 그 유모였던 李씨가 황제와 함께 乾清宮에 기거하며 鄭貴妃 세력과 연결을 맺고 황후가 되려고 하니

하는 것과 같다.

就如目下魏忠賢，把一個三案，一網打盡賢良。(제36회 入話 p499)

魏忠賢은 당시 대단한 권력을 장악하고 그에 대해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조리 잡아들이고 살해를 했던 宦官이었다. 이런 魏忠賢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많은 것으로 보아 《型世言》은 魏忠賢이 세력을 잃은 뒤에 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史料에 의하면 魏忠賢(1658-1627)은 萬曆 年間에 入宮하여 熹宗의 乳母 客씨와 결탁하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던 宦官이다. 天啓 5년(1625) 朝臣인 楊漣, 左光斗 등이 목숨을 내걸고 魏忠賢의 파면을 상주했으나 박해와 추방을 당하였고, 그 후로도 성실하고 강직한 관료들을 살해하였다. 崇禎帝가 즉위하자 魏忠賢은 바로 파면되었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을 매었다. 이때가 天啓 7년(1627) 11월이었다. 따라서 《型世言》은 적어도 魏忠賢이 실권을 한 이후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型世言》은 대략 崇禎 5년(1632) 전후에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型世言》 창작배경

문학은 사회생활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전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型世言》인 경

---

동림당 관료가 이씨를 별궁으로 옮겨 이씨의 정치개입을 막은 사건이다. 光宗의 책립을 주장했던 東林黨은 이 시기 득세하여 天啓초의 사건을 놓고 반대파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였다. 후에 魏忠賢은 이 “三案”으로 東林黨을 탄압하였다.(崔晶妍, <明朝의 統治體制와 政治>, 《講座中國史 IV-帝國秩序의 完成》, 지식산업사, 1998.2 6쇄 발행, p35참고)

우 40개의 고사중 대부분이 明代의 것이며, 당시 저명한 역사인물의 사적과 전설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 배경이 되었던 明代 사회의 정치·사회, 경제·문화, 문학 등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정치·사회적 배경

《型世言》이 출판된 崇禎 5년(1632) 전후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격변기였다. 神宗(萬曆 1573-1620)이 10세의 어린 나이로 등극하자 황태자 시절 侍講이었던 張居正(1525-1582)이 섭정태후의 지지로 10년간 首補로 있으면서 모든 政事를 위임받아 혁신 정치를 감행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 里甲체제의 붕괴에 의한 질서의 동요와, 대외적으로는 北虜南倭의 위기를 겪고 있던 隆慶·萬曆기의 상황에서 張居正은 전권을 가지고 행정·재정개혁을 행하고 對外強化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행정개혁으로는 관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萬曆 元年부터 考成法<sup>32)</sup>을 실시하였고, 재정개혁으로는 당시 대토지 집적과 隱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균형있는 세수징수를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丈量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과세대상을 바로잡고 이에 근거하여 一條鞭法<sup>33)</sup>이란 세수징수개혁을 실시했

32) 考成法은 관료가 상주하여 황제의 재가를 얻은 사안은 반드시 해결되도록 하여 일의 緩急, 거리의 遠近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그 집행여부를 책으로 만들어 매달 보고하고 매해 總結을 지어 지연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하여 책임추궁을 행하고 관리의 근무평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공무처리보고의 文冊도 3별을 만들어 지방·육과·내각에 보내도록 했기 때문에, 각 기구가 상호 견제, 경쟁하게 되고 관료에게도 상벌을 통해 일을 독촉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은 제고되었다.(崔晶妍, <明朝의 統治體制와 政治>, 《講座中國史 IV-帝國主義의 完成》, 지식산업사, 1998.2. 6쇄발행 p26-27)

33) 一條鞭法이란 戶等制를 폐기하고 田土와 丁男을 단위로 직접 부과함으로써 각종 里甲徭役을 地銀과 丁銀으로 통일하여 전부 銀納시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사회는 사실상의 은본위 경제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일조편법은 원래 嘉靖 初년에 창시되었던 것으로 당시에는 남방의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그후 여러차례 실시와 중지를 반복하다가 神宗 즉위 후 張居正이 賦

다.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인 국방정책을 실시하여 서북 변경에 戚繼光을 발탁, 군사훈련과 양식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개혁으로 잠시 안정을 찾았으나 그의 사후 중앙정부에서는 黨派(東林黨<sup>34)</sup>)가 형성되고 지방에서는 농민반란이 계속되어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光宗에 이어 熹宗(天啓 1621-1627)이 즉위했지만 실권은 宦官 魏忠賢이 장악하였다. 그는 東林黨을 탄압하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이를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sup>35)</sup> 明代의 마지막 황제인 思宗(崇禎 1628-1644)이 즉위하여 魏忠賢 일당을 몰아내고 다시 東林黨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

---

역의 부담을 균등하게 하고 재정수입을 늘이기 위해 만력 9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34) 東林黨이란 명칭은 집권내각과 俺黨에 의해 붙여진 것이나 그 구성원에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를 전후하여 일정한 정치경향을 같이하는 인사들을 총칭할 수 있다. 東林운동은 협의로는 反宦官·反內閣집권과의 과별적 정치운동이지만, 광의로는 이감제적 전제체제의 붕괴과정에서 체제의 위기를 둘러싼 정치투쟁으로, 황제일원적인 전제지배체제를 반대하고 分權公治적인 君主主義를 표방한 것에 시대적인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東林은 시대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의 제시와 그를 위한 대립보다는, 유교적인 도덕원칙과 개인의 비행에 대한 탄핵에 치중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李炫姪, <《型世言》題材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p9 주) 20 인용)

35) 天啓 6년(1626년)에 당시 지독한 공포정치로 횡포를 자행하던 宦官 魏忠賢을 중심으로 한 환관파의 악정에 대하여 東林派를 중심으로 하여 “開讀의 變”이 일어났다. 이는 동림파의 퇴직관료였던 周順昌(소주 출신)을 체포하러 소주에 내려간 관리가 소주 察院에서 開讀儀式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만 여명의 민중이 주순창 체포의 부당성을 항의한 사건이었다. 이때 민중들 선두에는 시종 500여 명의 생원이 앞장서서 지휘하였다. 이에 식장은 대혼란에 빠지고 개독의식은 중단되었다. 官에서 “개독의식을 행하지 않고는 주순창을 북경으로 출발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사태는 겨우 진정되었다. 그러나 관에서는 민중이 해산하자 주순창을 몰래 북경으로 압송하였고 首謨者는 모두 체포하였다.(吳金成, <明末·清初의 社會變化>, 《講座中國史 IV-帝國秩序의 完成》, 지식산업사, 1998. 2(6쇄 발행), p123 참고)

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오랜 기간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民亂은 이때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으며 明 왕조의 부패한 통치에 몰락한 지식인들도 민란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이에 黨爭으로 어지럽혀진 明末 사회는 지나친 租稅로 인한 농민들의 봉기로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다.

陸人龍은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처하여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백성들의 고난을 목도했기 때문에 《型世言》에서는 明末의 어지러운 상황과 몰락해 가는 왕조에 대한 작자의 우려를 엿볼 수 있다.

## 2) 경제·문화적 배경

明왕조는 중반 이후 정치적으로는 內優外患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상품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져, 도시의 흥성, 시민계급의 성장, 문인의 俗化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도시의 발달과 시민계층의 성장은 小說, 戲曲 등의 속문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蘇州, 杭州, 武昌, 廣州 등 강남지방 도시의 발달과 상품경제의 발달로 인해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도시는 상인들의 결집지가 되었으며 이들 상인들은 신흥 시민계층을 형성하였다. 상인들이 상품경제의 발전과 함께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문화적인 지위도 향상되었다. 일부 상인들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거나 官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고, 문인들과의 교류와 후원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문인들의 상인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상업에 대한 평가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생활에 여유가 생긴 시민계층은 이전 지배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

던 문화 오락생활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학예술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어 小說, 戲曲 등의 속문학도 발전하게 된 것이다.<sup>36)</sup>

陸人龍의 생활근거지였던 浙江지역은 상공업이 발달하고 동남 연안에 위치하여 해외무역도 성행하여 선진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곳이었다. 또한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함께 문학가나 예술가, 서적 수집상들이 밀집하여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이루었다. 특히 蘇州와 杭州 등지는 출판사업이 발전했으며 陸氏 형제의 전문적인 출판사 崢霄館 역시 杭州에 자리하고 있었다. 인쇄술의 발전은 백화문자의 대량출판을 가능케 했으며 이로 인해 상인이나 부녀자들까지도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점은 또한 소설의 급속한 발전에 중대한 요소가 되었다.

### 3) 문학적 배경

先秦이래로 중국문단은 詩文 위주의 문학풍조와 유가적 실용주의 문학사상이 지배해왔기 때문에, 小說은 "小道"라 불리며 稗官野史 정도로 경시되었다. 이러한 소설에 대한 경시 풍조와는 달리 明末의 李贄, 馮夢龍, 凌濛初, 金聖嘆 등은 당시 유행하던 通俗小說을 중시하고 그 교육적 效用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특히 李贄는 "童心說"을 주장하여 외적 지식이나 위선적인 禮敎에 물들지 않은 진심과 진정에서 나온 것만이 참된 문학이라고 하였으며, 《西遊記》·《水滸傳》과 같은 통속문학을 "天下至文"이라고 칭찬하였다. 또한 고대 聖賢의 "發憤之作"을 소설에 적용시킴으로써 작자가 현실생활에서 느끼는 분노와 원망을 토로하기 위해

---

36) 崔琇景, <凌濛初의 '兩拍'研究-作家意識을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5. 12, p13 참고)

소설을 창작한다는 소설의 창작동기를 부여하였다.<sup>37)</sup> 그는 또한 이렇게 현실생활에서의 모순을 반영하여 작자의 의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후대 소설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馮夢龍과 凌濛初 역시 소설이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敎化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馮夢龍은 이러한 소설의 社會敎化적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설의 효능을 요약했다.

六經과 《論語》, 《孟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각 다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스런 신하가 되게 하고 효자가 되게 하고, 현명한 관리가 되게 하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며, 의로운 남편이 되게 하고, 절개 있는 아내가 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선비가 되게 하고, 선을 쌓는 집안이 되게 한다. 단지 이와 같을 따름이니, 經書는 논리를 저술하고, 역사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법도는 동일한 것이다. 논리로 책을 지으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토론하고 연구하는 선비가 아니고, 사건으로 책을 기술하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박식하고 고상한 유학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촌의 남자들과 어린아이들, 마을의 부녀자들과 상인들의 경우는, 감이 옳고 울이 그르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노하며, 인과응보로 권선징악을 삼고, 길거리의 말로써 학문을 삼으니, 通俗演義라는 것은 결국 經書나 史傳類가 미진한 부분을 보좌할 수 있다.

六經語孟譚者紛如，歸于令人爲忠臣，爲孝子，爲賢牧，爲良友，爲義父，爲節婦，爲樹德之士，爲積善之家。如是而已矣。經書著其理，史傳述其事，其揆一也。理著而世不皆切磋之彥，事述而世不皆

37) 陳謙豫, 《中國小說理論批評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9.10, p58~59 참고

李贄는 《忠義水滸傳序》에 「太史公曰：“《說難》, 《孤憤》, 聖賢發憤之所作也”。由此之, 古之聖賢, 不憤則不作矣。不憤而作, 譬如不寒而顫, 不病而呻吟也, 雖作可觀乎? 《水滸傳》者, 發憤之所作也。」라 하고 있다.

博雅之儒. 于是乎村夫稚子, 里婦估兒, 以甲是乙非爲喜怒, 以前因後果爲勸懲, 以聽塗說爲學問. 以通俗演義一種, 遂足以佐經書史傳之躬.(《警世通言》序)

시험삼아 說話人으로 하여금 이야기판을 벌이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놀라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거나 신이 나서 노래하고 춤추게 할 수 있으며, 칼을 들고 싶게도 했다가 옆드려 절을 하게도 할 수 있고, (분개하여) 목을 치고 싶어지게도 할 수 있으며, (불쌍하여) 돈을 건네주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겁쟁이는 용기를 갖게 되고, 음탕한 사람은 정절을 깨닫게 되며, 경박한 사람은 敦厚한 품성을 갖게 되고, 우둔한 사람도 이해하고 땀을 흘리며 감동할 수 있다. 그러니 비록 어려서부터 《孝經》이나 《論語》를 암송한다 해도 사람을 감동시킴이 이처럼 빠르고 깊을 수는 없을 것이다.

試令說話人當場描寫, 可喜可愕, 可悲可涕, 可歌歌舞; 再欲捉刀, 再欲下拜, 再欲決脰, 再欲捐金; 怯者勇, 淫者貞, 薄者敦, 頑鈍者汗下. 雖小誦孝經論語, 其感人未必如是之捷且深也.(《喻世明言》序)



馮夢龍은 經書나 歷史書의 경우 어려운 문장과 철학적 논리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선비나 유학자로 그 한계가 있는 반면, 통속소설인 경우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고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흥미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說書의 형식을 이용하여 전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속소설은 經書나 歷史書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교화작용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일반 백성들은 통속소설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도리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실천을 하게 됨에 따라 일반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經書나 歷史書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型世言》도 통속소설이 예전의 經書나 歷史書가 담당했던 교화 작용을 대신할 수 있다는 소설이론의 영향을 받아 전편에 걸쳐 勸善·勸戒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孝子·忠臣·烈婦·義僕등을 歌頌하며 봉건시대의 정통관념인 유가사상을 선양하여 일반 백성들을 勸戒하고 교화하고자 하였다.



### Ⅲ. 《型世言》의 주제사상

《型世言》의 주제는 그 書名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型世(세상의 틀을 세운다)”로 집약될 수 있다. 이 “型世”는 ‘진실로 오늘날 세상의 틀을 세울 수 있다(樹型今世)’란 의미와 忠孝節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閨中 여인들의 본보기(閨中女範)’로 삼는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는 評者 陸雲龍의 回前 서문이나 回末評에서 엿볼 수 있다.

누차 王師에게 항거한 것은 아마도 나라에 보답하려 한 것이며, 사람이 하늘을 이길 수 없어 결국 목숨을 버리고 말았으니 이는 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高賢寧이 (燕王에게 보내는) 글을 지은 것은 또한 봉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것은 史冊에 보인다. 鐵氏의 두 딸이 지은 시는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록하여 세상의 틀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

若屢抗王師，殫謀報國，人不能勝天，卒以死殉，是爲公。而高賢寧之作論，又不食祿，見之史冊。鐵氏二女之詩，見之傳聞，固宜合紀之，以爲世型。(제1회 回末評 p20)

독창에서 기발한 모의를 운용하는 것이니 어찌 굳이 고인을 답습하겠는가? 자연스러운 것에서 천륜을 완성시킬 수 있으니 진실로 오늘날 세상의 틀을 세울 수 있다.

運奇謀于獨創，何必襲迹古人；完天倫于委蛇，眞可樹型今世。(제3회 小引 p33)

만약 부귀한 데서 오는 자만심에서 나오지 않고, 잠시 빈천해져서 오는 실망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갖추어 閨中 여인들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如不以出于富貴而有傲心，暫落貧賤而有餒心，俱可作閨中女範。(제18회 題詞 p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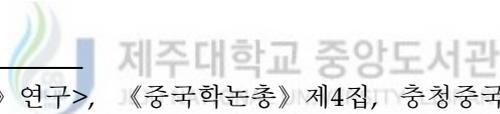
이들은 바로 작자의 주제사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들로 작자는 유가적인 입장에서 윤리도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행위와 그 결과를 보여주어 세상사람들을 교화하고 勸戒하고자 ‘세상의 모범적인 틀’을 세우려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忠孝節義라는 전통적인 유가사상을 충실히 실천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구체적이고 다소 과장된 행적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들을 본받기를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9회의 王原은 어머니가 준 치마와 옷가지만을 들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생면부지의 아버지를 찾아 나섰으며, 제4회의 陳妙珍은 간을 떼어내어 할머니의 병을 낫게 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작자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꿈을 통하여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게 하거나 道士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성이면 感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忠孝節義의 마음만 간절하다면 누구든지 忠孝節義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범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樹型今世”와 “閨中女範”의 도구로 삼아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고 유가사상을 선양하려 하였다.

또한 작자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처벌을 보여주어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勸戒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도적, 건달, 호색한, 사기꾼, 부패 관리 등이며 이들은 성적 쾌락과 재물에 대한 탐욕 등을 위해 공갈과 사기를 이용했으며 때로는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하여 결국은 이에 상응하는 벌과 應報를 받았다. 예를 들면 제22회의 任金剛 등은 도적의 신분으로 錦衣衛 校尉를 사칭했으며, 제21회의 徐銘과 제26회

의 吳爾揮는 각각 사촌동생과 남의 부인을 탐하다 죽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였다. 제27회의 錢流는 남의 재물을 탐하다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친척까지 화를 당하게 했으며, 제29회의 徐行과 徐州同도 목숨을 잃거나 의처증으로 부인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즉 작자는 이들이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중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작자는 이러한 明末의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예의를 밝히지 못하고 교화가 일어나지 않음에 귀결시키고, 천하의 대란은 모두 탐욕하고 임금과 부모를 배반하고 윤리도덕을 지키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보았다.<sup>38)</sup> 따라서 忠孝俠義 등의 윤리도덕을 지키면 이러한 혼탁함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아 전반부는 忠, 孝, 節, 義 등을 실천한 인물들을 歌頌하여 “樹型今世”하기 위해 善을 권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貪色, 貪財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여 세상 사람들을 勸戒하고자 하였다.<sup>39)</sup>



38) 朴在淵, <《型世言》 연구>, 《중국학논총》제4집, 충청중국학회, 1995. 4, p110 참고

39) 朴在淵은 회목의 순서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보고 忠孝節義類(제1회~제20회), 勸善懲惡類(제21회~제36회), 異聞異事類(제37회~제40회)로 구분하였다.(朴在淵, <《型世言》 연구>, 중국학논총 제4집, 충청중국학회, 1995. 4, p111~112)

權寧愛은 주제사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人倫類 총 17회(孝 : 2, 3, 4, 9회, 弟 : 13회, 貞節 : 1, 6, 10, 16회, 婦德 : 18회, 義 : 1, 5, 7, 8, 14, 15, 17, 19회), 戒貪財貪色類 총 13회(11, 20, 23, 24, 25, 26, 27, 28, 29, 31, 32, 33, 35회), 奇聞異事類 총 9회(智破疑案 : 21, 22, 30, 36회, 官場黑幕 : 30회, 異人異事 : 34, 37회, 志怪 : 38, 39, 40회)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제12회가 누락되어 있다.(<型世言研究>, 臺灣私立東吳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學位論文, 1993. 6, p201~204)

覃君은 忠孝友悌와 貞烈俠義(20회까지), 良吏明斷, 良將多謀事(21~24회), 勸戒(25회~32회), 因果應報와 仙道(33회~36회), 妖異靈怪(37회~40회)로 구분하였다. (<《型世言》 前言>, 中華書局, 1993.7, p8~9)

따라서 본고는 《型世言》의 제1회에서 제20회까지는 忠孝節義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善行을 권하고 있기에 “勸善”이라 하고, 제21회에서 제36회(제34회 제외)까지는 도적, 건달, 흉악범, 사기꾼 등의 부정적인 인물들이 마땅한 징벌이나 應報를 받게 하여 세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勸戒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勸戒”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의 기이한 고사를 기록한 것이므로 “異聞”으로 분류하여 주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勸善類

《型世言》은 유가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忠孝節義의 봉건 윤리도덕을 선양하여 世人들의 모범을 세우고 善行을 권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忠孝節義의 봉건 윤리도덕을 선양하는 주제사상은 주로 제1회부터 제20회에 걸쳐 뚜렷이 보이며, 忠臣·孝子·俠士·烈女·義僕·신의를 지킨 친구 등 모범적인 인물들을 소개하여 “世型”을 이룸으로써 세상 사람들도 이들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 20회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뉘보면 다음과 같다.

- 忠 : 제1·8·12·17회
- 孝 : 제2·3·4·9회
- 貞節 등의 婦德 : 제1·6·10·16·18회
- 義 : 제1·5·7·8·11·12·13·14·15·19·20회

### 1) 忠

먼저 《型世言》에 나타난 “忠”을 다룬 故事를 살펴보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明代 역사상의 유명한 충신들이며 이들의 충성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하였다. 그 예로 제1회 <烈士不背君 貞女不辱父>의 鐵尙書<sup>40)</sup>, 제8회 <矢智終成智 盟忠自得忠>의 程濟<sup>41)</sup>, 제12회 <寶釵歸仕女 奇藥起忠臣>의 李時勉<sup>42)</sup>, 제17회 <逃陰山運智南還 破石城抒忠靖賊>의 項忠<sup>43)</sup>은 모두 실제 인물들이며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1회의 鐵尙書와 제8회의 程濟는 靖難<sup>44)</sup>이 일어났을 때 모두 建文君에게 충성을 다했던 충신들이다. 鐵尙書는 燕王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천하는 燕王의 차지가 되었다. 이때 많은 文武신하들이 燕王인 成祖에게 귀의하였지만 鐵尙書만은 建文君에 대한 충성을 지

40) 鐵尙書에 관한 이야기는 宋端儀의 《鄭州鐵公傳》, 曹參芳의 《遜國正氣紀》卷3, 《明史》卷142에 보이고 있다.(《型世言》, 中華書局, 1993. 7, p565 附錄2 《型世言》故事源流)

41) 建文帝가 삭발을 하고 도망하고, 程濟가 보좌했다는 일은 史에 기록된 것은 많지 않으나, 민간에서 전해지는 전설에는 상당히 많다. 《明史》卷143에 程濟本傳이 있다.(앞의 책, p566)

42) 彭韶의 《李時勉傳》, 《明史》卷163에 그 기록이 보이고 있다.(앞의 책, p567)

43) 《國朝獻徵錄》권38, 《皇明獻實》권32, 《樞李往哲列傳》권1, 《聖朝名世考》권3에서는 項忠이 임금을 따라 북벌에 나섰다 오랑캐에게 포로로 잡혀 말을 키우다가 중원으로 도망하였으며, 그 후 固原에서 土蕃의 난을 평정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明史》권178에 傳이 있다.(앞의 책, p567~568)

44) 명 太祖는 몽고의 北元세력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을 邊方に 封建하는 방식으로 변방방비를 아들들에게 맡겼다. 洪武 3년부터 24년에 걸쳐 모두 25명의 아들이 分封되었고 그중 9왕이 변방에 봉건된 塞王이었다. 이들은 독자적인 군대를 갖고 있고 몽고토벌을 위해 그 병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아울러 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지방정권으로 발전하였다. 그 중 西安의 皇二子 秦王, 太原의 皇三子 晉王, 北平의 皇四子 燕王의 세력이 가장 막강하였다. 태조가 죽고 22세로 즉위한 惠帝는 시호를 建文으로 하고 齊泰, 黃子澄, 方孝孺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諸王의 세력삭감을 기도하였다. 이에 제왕이 난을 일으켜 그중 세력을 모은 燕王이 황제 측근의 난신배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靖難의 役”을 일으켜 4년에 걸친 대치 끝에 建文 4년 南京을 정복하였다. (崔晶妍, <明朝의 統治體制와 政治> 《講座中國史IV-帝國秩序의 完成》, 지식산업사 1998. 2, p15)

켜 결국 능지처참 당했다. 程濟는 建文君과 함께 成祖를 피해 도망한 신하로 수십 년간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충정의 마음은 끝내 버리지 않은 신하였다.

제12회의 충성스럽고 강직한 李時勉은 임금에게 직간을 하여 감옥에 갇혔지만 새로 부임한 宣德황제는 그의 행동을 칭찬하여 죄를 사면하고 다시 翰林院의 侍讀으로 복직시켜주었다. 李時勉은 나중에 國子監 祭酒가 되어 과거의 폐해를 고치고 선비들을 아끼고 우대한 관리였으며 권력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 강직한 학자였다. 이때 太監 王振은 李時勉이 평소에 다른 사람과는 달리 자신을 냉대하는 것에 화가 나있었다. 마침 彝倫堂의 나무가 사람들의 출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자른 일이 있었는데 王振은 이를 빌미로 李時勉에게 칼을 썬우고 국자감 문 앞에 세워 망신을 주었다. 李時勉은 여러 監生들의 사면요청으로 다시 성문을 열어 풀려났지만 “선비는 죽을 수는 있어도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士可殺不可辱!)”며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제17회의 項忠은 正統 14년에 북방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 임금의 親徵을 따라 적진에 갔다가 오랑캐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해온 사람이었다. 황제는 그의 충정을 가상히 여기고 오랑캐의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변방을 잘 안다고 생각하여 변방을 담당하는 벼슬을 제수하였다. 그는 성곽을 수리·축조하고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 변방의 일을 정리하고 백성을 잘 보살폈으며, 成化 연간에는 固原지방에서 滿四 등이 일으킨 난을 평정하기도 하였다. 그 후로도 그는 변방에서 근무하며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하였다.

이들 忠臣들은 임금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했으며 백성들을 대할 때도 자애로웠고, 선비들도 우대한 등 너그러운 관리였다. 제1회의 鐵尙書는 백성을 위하는 것이 다음과 같았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선비들을 예우로써 대했다. 지방에 재해가 있으면 바로 구휼처를 설치하여 구휼하였다. 힘세고 포악한 사람들을 제압하여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였고, 생원들에게 親喪이 있으면 봉급을 모아 부조하였으며, 자주 유생들을 모아 놓고 文會나 講會를 열었다.

他愛惜百姓，禮貌士子，地方有災傷，即便設處賑濟。鋤抑強暴，不會他虐害小民。生員有親喪，畢竟揖俸周給。時嘗督率生儒，做文會、講會。(제1회 p3)

제12회의 李時勉은 國子監의 祭酒로 재직당시 國子監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다음과 같았다.

가난하여 결혼을 아직 못 했거나 부모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두 식비를 절약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 병이 난 사람이 있으면 의원을 불러주고 약을 사주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을 내렸다.

有貧不曾娶妻的，不能葬父母的，都在餐錢里邊省縮助他；有病的，爲他醫藥；勤讀的，大加獎賞。(제12회 p179)

이처럼 임금에게는 충성스런 신하였고 백성들에게는 자애로운 관리였으며, 아랫사람을 가족처럼 대했던 실제 인물들을 다룬 것은 明末시기에 자신들의 직분을 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던 간교한 관리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신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백성들을 위해 노력하는 관리들은 거의 없었다. 이런 관리들을 경계시키기 위해 《型世言》에서는 관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아직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마음과, 임금의 봉록을 받으며, 임금에게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일단 관리가 되면 더욱 더 정치적 식견을 다 펴야 한다. 만약 백성을 어루만지며 구제하는 일을 맡게 된다면, 반드시 이익을 늘리고 위협을 제거해야 하며, 백성을 위해 생계를 도모해 주어야 하지,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여 봉록을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 돈과 곡식을 관리하게 되면, 반드시 간악한 것을 찾아내고 부패를 척결하여 나라를 위해서 국고를 충분하게 해야지, 관청을 침범하거나 백성들을 약탈해서는 안 된다. 형벌을 관리하게 되면 반드시 원통함을 씻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어 백성들에게 살 길을 찾아주어야 하지, 옛 것에만 의지하여 새로운 생각은 해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책 읽는 것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관리가 되는 것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다. 만약 紗帽를 써서(관리가 되어) 下司가 되어서는 吏書에게 맡기고, 上司가 되어서는 府縣에게 맡겨, 오로지 고소장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돈을 좇는다든지 선물을 받는다면, 어찌 벼슬하지 않았을 때의 웅대한 포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未做官時，須辦有匡濟之心，食君之祿，忠君之事；一做官時，更當盡展經綸之手。卽如管撫字，須要興利除害，爲百姓圖生計，不要尸位素餐；管錢谷，須要搜奸剔弊，爲國家足帑藏，不要侵官剝從；管刑罰，須要洗冤雪枉，爲百姓求生路，不要依樣葫蘆。這方不負讀書，不負爲官。若是戴了頂紗帽，或是作下司憑吏書，作上司憑府縣，一味準詞狀，追紙贖，收禮物，豈不負了幼學壯行的心?(제21회 p283~284)

작자는 관리는 마땅히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관리들은 대리시험이나 賣官賣職을 통해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하기보다는 자리만 차지하여 俸祿만을 챙기거나 혹은 백성들을 수탈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뇌물을 바치는 이들에게 유리

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작자는 이러한 부정한 관리들을 비난하고 올바른 관리상을 세우기 위해서 鐵尙書나 李時勉 등과 같은 실제인물을 등장시켜 '세상의 모범적인 틀'로 삼고 세상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 2) 孝

“孝”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룬 고사는 제2회 <千金不易父仇 一死曲伸法國>, 제3회 <悍婦計去孀姑 孝子生還老母>, 제4회 <寸心遠格神明 片肝頓蘇祖母>, 제9회 <避豪惡懦夫遠竄 感夢兆孝子逢親>이다.

제2회는 효자 王世名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불효하지 않으려고 끝내 자살한 이야기이다.<sup>45)</sup> 王世名の 아버지는 조카 王俊과 싸우다가 맞아 죽었는데, 당시의 官府는 매우 부패하여 돈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의 편만 들어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풀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다만 근래에 들어 官府에는 영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아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써서, 밖에서는 관직에 있는 자에게 부탁하여 돈으로 관계를 트고, 안에서는 書史, 문지기에게 톡톡히 돈을 집어주어 취조관을 매수한다.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세력을 이용하여 상사에게 분부를 내릴 것을 부탁을 하고 혹은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중간에서 좋은 말을 해주게 하여 취조관을 힘으로 제압한다. 또 맞는 것이나 고문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랑자를 매수하여 확실한 증거로 삼고는, 위에서 호령하고 아래에서 호응하게 하고는, 담당 檢시관에게 후한 뇌물을 주

---

45) 효자 王世名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이야기는 明代에 널리 유행하였다. 이 이야기는 《明史》卷136과 卷297에 傳이 있고, 《國祖獻徵錄》卷112 에는 張鳳翼의 <王孝子世名傳> 등이 있다. 凌濛初도 《二刻拍案驚奇》卷31 <行孝子到底不箇尸, 殉節婦留待雙出柩>에서 이 故事를 다루고 있다.(《型世言》, 中華書局, 1993. 7, p565 附錄2 《型世言》故事源流)

어서, 重傷을 輕傷으로 보고하게 한다. 양심이 있는 崔조관이라면 그래도 송두리째 중지시키고 後人들에게 남겨주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도리어 무고하게 죄를 덮어씌운다.

只是近來官府糊塗的多, 有錢的便可使錢, 外邊央一個名色分上, 里邊或是書史, 或是門子、貼肉摠, 買了問官. 有勢的又可使勢, 或央求上司分付, 或央同年故舊關說, 劫制問官. 又買不怕打、不怕夾的潑皮做硬證, 上呼下應, 厚賄那件作, 重傷報輕傷. 在那有人心問官, 還葫蘆提攔起, 留與後人. 沒人心的, 反要坐誣.(제2회 入話 p22)

즉 당시는 官府의 부패로 인해 天理보다는 돈이 중요시되어 '돈이 있는 사람은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죽는 때(有錢者生, 無錢者生)'라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싸울 수도 없었다(貧不與富鬪)'. 가난했던 王世名은 이 살인사건을 官府에 고발하여도 崔조관이나 檢시관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王俊을 살인자라고 밝힐 수도 없었지만, 官府에 고발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소송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아버지의 시체를 부검해야 했기 때문이다. 효자인 王世名은 아버지의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숙부도 때려죽일 수 있다(只要有錢, 阿叔也可打殺的)'며 비웃어도 王俊이 준 돈을 받고 소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하여 王俊에게서 받은 돈은 잘 보관해 두고는 꺼내 쓰지도 않았으며 "復讎"라 새긴 칼을 항상 지니고 다녔고, "忠孝"에 관련된 문장들을 암송하며 다녔다. 그는 6년 후 결혼을 하고 후사가 생기자 바로 만취해 돌아오는 王俊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는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과 증거품인 칼을 官府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知縣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여, 王世名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친의 시신을 檢시해야 한다고 했지만 효자인 王世名

은 '자신이 죽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하지 않아도 되기 (我一死, 可以全我父了)' 때문에 죽음으로 효도를 다하였다.

王世名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바로 王俊에게 복수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교적인 면에서는 후사가 없다는 것도 불효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간을 감내하며 복수를 뒤로 미룬 것이었다. 그의 孝行을 가상히 여긴 知縣이 그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는 역시 부친의 시신을 다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6년 전 일이어서 부친의 시신을 검사한다 한들 시신을 훼손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한 그 당시 뇌물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으니 그가 사면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주위의 만류와 충고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몸은 아버지가 낳은 것이니 아버지를 위해 죽겠다'고 하여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다했다 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어머니에게도 효도를 다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인과 아들이 있어 어머니를 봉양할 수는 있었겠지만 부모 먼저 세상을 하직하는 것 역시 불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자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孝의 실천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머니를 두고 자살하는 것은 그것에 비해 작은 不孝라고 여긴 것이다.

제3회의 주인공 周于倫도 이름난 효자였다. 周于倫은 어머니와 술집을 운영하며 掌珠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周于倫은 지극한 효자였지만 掌珠은 이런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周于倫이 밖에 나가 장사를 하게 되자 둘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

掌珠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는 掌珠가 유교적 관점에서 요구하는 婦德을 지키지 못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봉건시

대의 여자는 閨房을 지켜야지 밖으로 나돌며 외부사람들과 왕래하는 것을 금지 당했다. 더구나 掌珠가 어울렸던 이웃집 여자들은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심한 훈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掌珠의 천성은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는 자연 소홀할 수밖에 없어 시어머니가 편찮았을 때도 가게 운영을 핑계로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았다. 장사에서 돌아온 周于倫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모든 잘못을 掌珠에게만 돌리면서 심한 욕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掌珠는 이웃여자들의 충동질에 넘어가 계획을 세워 시어머니를 章盛之에게 팔아버렸다. 장사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없어진 것을 안 周于倫은 결국 章盛之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어머니를 찾았고 후에 周于倫은 掌珠를 속여 章盛之의 집에 데려다 주고는 대신에 어머니를 찾아왔다. 작자는 시어머니를 팔아버린 며느리를 “悍婦(사나운 며느리)”라고 하고 그 결말도 모욕을 받아 죽게 만들었으며, 부인을 팔아버린 周于倫에게는 縣承도 그의 딸을 선뜻 내줄 만큼 이름난 효자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팔고, 부인으로 어머니를 바꿔온 것은 모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꼬득임은 결국 周于倫의 어머니를 멀리 떠나보내고, 掌珠는 속임수를 당하게 했으니,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以婦賣姑，以妻易母，俱不經見之事。而隣人之構逗，卒至使周母流離，掌珠負慝，亦可爲比匡之警。(제3회 回末評 p50)

回末評에서도 위와 같이 말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이든 시어머니를 팔아버린 일은 유교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이며

또한 세상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된다고 하고 있다. 즉 작자는 周于倫이라는 효자를 통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는 틀을 제시하였고 掌珠를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자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효자란 칭송을 받았던 周于倫은 그 행동 면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掌珠가 고부간의 갈등을 느끼게 된 것은 그저 周于倫이 자신보다는 어머니에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에 질투심을 느낀 것뿐이며, 周于倫이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함에 있어 어머니의 편을 든 것도 어머니에 대한 효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명백히 掌珠가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또한 없어진 어머니를 찾아오는 일은 굳이 효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물론 掌珠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인을 주고 어머니를 모셔온 것은 너무나 박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周于倫은 처벌은커녕 효자라는 칭송마저 듣게 되었다. 그리고 작자는 掌珠의 불효를 부각시키기 위해 어렸을 때 여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잡다한 이야기를 즐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掌珠는 유교에서 요구하는 婦德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된 것이며 이웃집 여자들과도 어울리게 되어 결국 시어머니를 팔아버리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掌珠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팔 생각은 없었으며, 이웃집 여자의 제안을 받았을 때도 충분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원래부터 '사나운 며느리'는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었다. 즉 작자는 周于倫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孝라는 선행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소 억지스러

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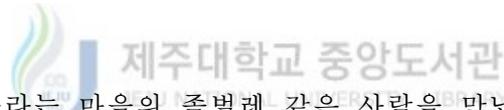
제4회는 14살의 陳妙珍이 자신의 간을 떼어내어 할머니의 병을 고친 이야기이다. 할머니가 노환이 들자 허벅지 살을 잘라 죽을 쑤어 할머니에게 드렸고, 다시 병환이 들자 이번에는 간을 도려내어 할머니에게 드려 할머니의 병을 낫게 하였다. 陳妙珍은 꿈에서 본 道士의 말대로 하여 고통없이 간을 떼어내어 할머니에게 드려 병을 낫게 하긴 했지만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작자는 이런 불가능한 일을 소개함으로써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으니, 陳妙珍처럼 자신의 간을 떼어내어 부모의 병을 고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부모에게 효도는 해야한다고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비구니가 되었으며 죽을 때는 사리가 백 여 알이나 나왔다. 작자는 이야기의 끝을 “모든 經典에서 孝義가 우선이다. 사람이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할 수 있다면 어찌 부처가 되지 않고 본보기가 되지 않겠는가?(千經萬典, 孝義爲先, 人能眞實孝親, 豈不成佛作祖?)”라고 하여 효도를 다한다면 成佛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작자는 효녀 陳妙珍을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인물로 소개하면서 조금은 과장된 일을 말하고 있다. 陳妙珍이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복시켜 道士의 도움을 받아 고통없이 간을 떼어내어 할머니를 소생시키는 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사의 도움을 받기는 했어도 14살의 어린 나이로 혼자서 자신의 몸을 잘라 간을 잘라낸다는 것은 정말 대다한 일이고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간을 잘라낸 것도 의문이고, 상처도 종이를 태워 막으니 며칠만에 아물었다는 것은 현재의 상식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자는 陳妙珍이 이런 효행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유가사

상에서 요구하는 婦德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陳妙珍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며, 부부 및 동서지간에는 화목해야 하고, 부지런하고 절약해야 한다는 등 봉건시대 여성이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再嫁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11살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상을 지냈고 古今の 효자들이 자신들의 살을 떼어내어 부모를 소생시켰다는 고사를 기억해내 자신도 그들을 본받아 간을 잘라 할머니에게 드렸던 것이다. 작자는 '세상의 모범적인 틀'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유가사상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강조하여 당시 다소 소홀시되던 전통적인 유가사상을 선양하고자 하였다.

제9회의 王原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王禧를 찾아온 효자이다.<sup>46)</sup> 당시 백성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도 심했을 뿐더러 세금 징수관의 수탈도 심하였다.



이 王禧가 催科라는 마을의 촌별레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破落戶로 마을의 관리를 하였다. 催科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 살았다. 王禧는 이때 甲首로 인두세를 내야하고, 논이 있기 때문에 稅糧을 내야 했다. 그러나 관부에서는 비율을 따져 세를 거둬들인 적이 없고 완납을 재촉하였다. 세금을 다 내고 나면 催科는 또 금년에 치수공사를 하니 돈과 양식을 더 보내야 하고 상부에서 군인과 군량미를 더 보내라고 했다는 구실로 다시 세금을 더 내라고 하였다. 가난한 백성은 집에 돈이 없어 그에게 며칠 늦추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

46) 王原이 부친을 찾는 고사는 焦竑의 《國祖獻徵錄》卷112, 《明史》卷185 <孝義傳>, 李贄의 《續藏書》卷24 <王公>에 보인다. 또 明末 天然癡叟도 이 고사를 소재로 <王本立天涯求父>를 써서 그의 단편집 《石點頭》에 수록하고 있다.(權寧愛, <明末 세 作家의 同一題材에 대한 形象化 樣相-陸人龍을 中心으로->, 《중국소설논총》 제3집, 1994. 3, p144참고)

정이었는데, 催科는 이를 허락하고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 催科는 올 때마다 술과 밥을 달라고 하여, 고기도 한 근 사고, 소주도 두 병을 받아다가 그를 대접해야 했고 만약에 다른 집에서 먹고 왔을 때에는 닭이라도 주어야 깎아주었다. 만약에 그의 비위를 거스른다면 바로 자꾸 사람을 보내어 괴롭혔다. 그때는 마침 나라의 초기라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성을 짓고 연못을 파기도 하였고, 자주 군사를 일으켜 북벌에 나서기도 하였으며, 운하를 개통시켜 쌀을 나르기도 하여 정말 부역이 매우 많고 극도로 어려운 시기였다. 王喜는 그에게 술을 한번 덜 주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밭을 못 빼게 되었다. 농사 지을 시간도 없어서 보리는 결국 수확도 할 수 없었다. 여름이 되었는데 마침 洪武 18年이라, 가뭄이 심하게 든 때로 茹茹조차도 말라서 쌀을 얻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배나무 대추나무도 소득이 매우 적어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這王喜却遇着一個里蠹，姓崔名科，他是個破落戶，做了個里胥，他把一家子都要靠着衆人養活。王喜此時是個甲首，該有丁銀；有田畝，該有稅糧。他却官府不會徵比，便去催他完納。就納完了，他又說今年加派河工錢糧哩，上司加派兵餉哩，還要添多少。窮民無錢在家，不免延捱他兩個日子，一發好不時時去騷擾。一到，要他酒飯吃，肉也得買一斤，燒刀子也要他兩瓶請他；若在別家吃了來時，鷄也拿他只去準折，略一違拗，便頻差拔將來。其時正是國初典作之時，築城鑿池，累累興師北伐，開河運米，正是差役極多、極難時節。王喜只因少留他一遭酒，被他拔得一個不停脚。并不曾有工夫輪到耕種上，麥子竟不曾收得，到夏恰值洪武十八年，是亢旱時節，連茹茹都焦枯了，不結得米。便有几株梨棗，也生得極少。家中甚難過活。(제9 회 p128)

생활이 어려워진 王喜는 부인의 옷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催科에게 貧困者 명단에 올려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催科는 돈만 받고 뇌물이 너무 적다는 트집을 잡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名冊에서 王喜를 빼버렸다. 王喜는 이 일을 따지다가 催科와 치고 받고 다투게 되었는데 이 일로 官府에 고발당할까 겁이 난 王喜는 고향

을 떠나 고생을 하다 大慈스님을 만나 그의 절에서 道者로 묵고 있었다.

한편 王原은 아버지를 찾아다니던 중 풍랑을 만나 겨우 살아나 어느 廟堂에서 쉬다가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암시하는 꿈을 꾸고는 근처 산에 있는 절을 찾아가 아버지를 찾았다. 이렇게 하여 父子가 함께 돌아와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었으며 王原은 효자로 상부에 보고되었고 후에 孝行으로 벼슬도 제수받아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다. 작자는 그래서 ‘忠臣은 반드시 효자가 난 집안에서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求忠臣必于孝子之門, 有由然矣.)’라고 했던 것이다.

작자는 入話에서 ‘만약 부모님이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는데 나만 고향에서 편하게 지낸다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若使父母漂泊他鄉, 我却安佚故土, 心上安哉)’라 하여 부모가 타향에서 고생하는데 자식이 고향에서 편히 지낸다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얼굴도 거처도 모르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어머니가 준 옷가지만을 들고 길을 나섰음에도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작자는 꿈이라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암시하도록 함으로써 제4회 陳妙珍의 경우처럼 孝에 관한 마음만 간절하다면 이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작자는 이상과 같이 孝行을 실천한 여러 효자들을 소개하면서, 孝는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孝를 실천하면 이들과 마찬가지로 靑史에도 기록될 수 있으며(제2회의 王世名), 孝行으로 추천을 받아 관직에 오를 수도 있고(제9회의 王原), 심지어는 成佛할 수도 있다고 하여(제4회의 陳妙珍) 세상 사람들에게 孝行을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評者는 이런 孝行을 한 사람들을 평하면서 “양친이 살아있는데도 봉양할 수 없으면 이를 봄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읽

는 사람은 매우 부끄러울 것이다(高堂有親而不能養, 視此何如? 讀之者愧死矣!)”라 하여 이들을 효를 잘 실천한 ‘세상의 모범적인 틀’이라 소개하고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를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전통적인 유가사상에 얽매어 있어 孝를 행하려면 적어도 유교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함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의 孝行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 3) 婦德

明代에는 특히 女子의 貞節觀이 매우 높아, 烈女·節婦들이 많이 나왔으며, 이에 수반하는 女子의 도덕윤리를 지도하는 《內訓》, 《閨範》 등의 책도 나오게 되었다.<sup>47)</sup> 작자도 유교적 관점에서 여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婦德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자란 마땅히 德과 절개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절개란 욕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貧賤에 의해 옮겨지는 바가 아니며, 힘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스스로 정조를 지키는 것이다. 德이란 음탕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사납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며, 교만사치하고 게으르고, 입잘 놀리고 경망스러움과 그저 마음속에서 음란·절도·사나움·난폭함·게으른 것도 좋은 일이 아니며 모두가 부인들이 수치스러워 하는 것이다. 탐내고 인색함은 근검 절약을 위해서라고 핑계대고, 교만은 체면을 위한 것이라고 핑계대고, 경망함은

47) 陳東原, 《中國女性生活史》, 村田孜郎 譯, 東京 大東出版社, 1941, p131~139, 金元東, <《三言》愛情故事의 作品分析-愛情으로서의 欲求와 現實의 갈등면->,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5. 12, p73 재인용

엷매이지 않아서라고 핑계되고, 말 잘함은 영리해서라고 핑계댄다. 이것은 없애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꾸밈이 없기만 하면 모두 면할 수 있는 것이다.

女子當以德與節爲主, 節是不爲情欲所動、貧賤所移、豪強所屈、堅節自守; 德是不淫、不盜、不貪、不悍、不妬, 驕奢、懶惰、利口、輕狂, 但內中淫佚、竊盜、悍潑、懶惰, 不是向上事, 都婦人所羞; 獨貪嗇就托言說是做人家, 驕就托言說是存體面, 輕狂便托言風逸, 利口便托言伶俐, 這不易除. 然一個朴實, 都可免得.(제16회 入話 p221)

이에 따라 여자라면 유교에서 요구하는 데로 失節하지 말아야 했으며, 음란해서는 안되며, 질투해서도 안되고, 절약해야 하며, 부지런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도 안되었다. 그 중에서도 失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작자는 이러한 덕목을 잘 지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소개하였다. 우선 貞節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1회 <烈士不背君 貞女不辱父>, 제6회 <完令節 冰心獨抱 全姑丑冷韻千秋>, 제10회 <烈婦忍死殉夫 賢媼割愛成女>이며 제16회 <內江縣三節婦守貞 成都郡兩孤兒連捷>는 守節을 하며 妻妾끼리 서로 질투하지 않은 부인의 이야기이고, 제18회 <撥淪落 才王擇婿 破兒女態季蘭成夫>는 남편을 격려하여 성공하게 만든 季蘭의 이야기이다.

유교에서는 “餓死事小, 失節事大”라 하여 貞節에 대한 관념이 투철했으며 守節을 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節婦와 烈婦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賢哲하다고 일컬어지는 부인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만약 변하는 것에 처했다면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節婦이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어리거나 혹은 자식이 없거나 혹은 집안이 가난하

여도 시종일관 젊어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음이 마치 금석처럼 견고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烈婦이다.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살고 싶지 않아 강개하게 몸을 버려 주위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마치 火焰의 불꽃과 같은 경우이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慷慨하는 것은 쉽고, 태연한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節婦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烈婦의 일을 할 수 있으며; 烈婦의 의기가 있는 사람은 필경 節婦의 굳은 정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婦人稱賢哲的有數種，若在處變的，只有兩種：一種是節婦，或是夫亡子幼，或是無子，或是家貧，他始終一心，歷青年皓首不變，如金石之堅；一種是烈婦，當夫之亡，便不欲獨生，慷慨捐軀，不受遏抑，如火焰之烈。如今人都慷慨易，從容難，不知有節婦的肝腸，自做得烈婦的事業；有烈婦的意氣，畢竟做得節婦的堅貞.(제10회 入話 p143)

당시의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失節을 큰 죄라 여겨 남편이 먼저 죽으면 끝내 守節하여 節婦가 되거나 남편을 따라 죽는 烈婦가 되길 원했다. 시부모나 자식이 있고 생활이 살만하면 守節하기는 그래도 쉽다고 할 수 있었으나 시부모가 연로하고, 자식이 있더라도 어리거나 나이가 젊다면 이도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살기마저 어려워 끼니를 해결할 일이 막막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제라도 없다면 守節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으면 再嫁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4회 陳妙珍의 어머니도 집안이 가난하고 도움 받을 형제의 형편 또한 녹록치 못하여 형제들의 주선으로 재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제33회의 阮勝도 가난 때문에 부인을 이웃에게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6회의 烈女 唐貴梅는 남편이 죽고 守節하려고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자결하여 失節하지도 않고 효를 다하였다.<sup>48)</sup> 시어머

48) 唐貴梅의 이야기는 楊愼의 <孝烈女唐貴梅列傳>이 《升庵全集》卷11에 처음

니인 朱寡婦는 남편이 죽자 여관을 운영하면서 적막감을 이기지 못하여 손님 汪涵宇와 몰래 사통하였다. 이런 사실을 안 아들은 화병으로 죽고 唐貴梅는 남편을 위해 수절하며 평생 재가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唐貴梅에게 사심이 있었던 汪涵宇는 朱寡婦를 매수하여 唐貴梅에게 자신의 첩이 될 것을 강요하였다. 唐貴梅가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시어머니를 구박한다는 이유로 唐貴梅를 고발하였고 그녀는 시어머니의 醜行이 밝혀질 것을 걱정하며 모진 구박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작자는 唐貴梅가 시어머니의 추악함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孝를 행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남편을 따라 죽은 것은 貞節을 지킨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효부에다 열녀이기 때문에 청사에 마땅히 쓰여져야 한다(既孝且烈, 汗青宜書)'라 했으며 실제로 이 고사는 《明史》에 그 傳이 전해진다.<sup>49)</sup>

唐貴梅가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孝와 貞節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봉건적인 유교사상이 요구하는 婦德때문이라 할 수 있다. 효를 행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唐貴梅가 孝를 위해 시어머니의 말대로 汪涵宇의 첩이 된다면 이는 失節하는 것이 되고, 또 貞節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게 되어 不孝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고자 하였던 것이다.

제10회<sup>50)</sup>의 陳雉兒도 남편이 먼저 죽자 남편을 따라 죽어 烈女가

보이며, 李贄의 《焚書》卷5에서도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權寧愛, <型世言研究>, 臺灣私立東吳大學 中國文學研究所 박사논문, 1993. 6, p79~82참고)

49) 《型世言》, 中華書局, 1993.7, p566 참고

50) 《蘇州府志》에 이 회와 관련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權寧愛, 앞의 논문, p92)

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기 전에 미리 두 개의 관을 준비해 두고, 남편이 죽자 스스로 칼로 목을 베어 죽으려 했지만 칼이 너무 무디고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만류로 실패하게 되었다. 주위의 만류와 관심에도 끝내 남편을 따르기로 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딸의 굳은 의지를 안 어머니는 그녀가 자살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모른척하여 남편을 따라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결국 陳雉兒는 烈女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모른척하여 작가로부터 “賢媼(현명한 어머니)”이란 칭송을 받았다. 작자는 貞節을 지키려면 추위와 배고픔, 情欲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심지가 있어야 한 다며 다음과 같이 이 이야기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처럼 烈女는 마음이 철과 돌과 같아, 수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배고픔과 추움 때문에 정절을 뺏기며, 情欲에 이끌려 죽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節婦라면 반드시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수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 칼과 검이 마음을 찌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한다면 결국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나중에는 반드시 수절을 이룰 수 없게 된다.

如此烈婦，心如鐵石，則使守，豈爲飢寒所奪、情欲所牽，有不終者乎？吾謂節婦不必以死堅節，以其能死者，必其能守者也！若一有畏刀避劍肚腸，畢竟可以搖動，後來必守不成。(제10회 p153~154)

작자는 여자가 정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 하였고 평생 守節할 여건이 아닌 唐貴梅나 陳雉兒 등을 극찬하였으며 딸의 죽음을 모른척한 陳雉兒의 어머니도 “賢媼”라 칭송하고 있다. 작자는 남편이 죽어 의지할 데가 없는 부인들이나 혹은 남편이 죽은 후 바로 재가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사통을 하는 당시의 문란한 여인들에게 唐貴梅나 陳雉兒와 같은 烈女를 소개함으로써

씨 이들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작자의 이러한 貞節觀은 제16 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제16회는 세 과부가 守節하며 두 아들을 훌륭히 키운 이야기이다.<sup>51)</sup> 內江縣의 세 과부인 陳씨, 吳씨, 李씨는 서로 친자매들처럼 지내며 두 형제의 아들인 世建, 世延를 훌륭히 키워냈다. 이들은 남편들이 죽자 재가를 권하는 이들에게 “살아서도 蕭씨집 사람이고, 죽어서도 蕭씨집의 귀신(我生作蕭家人, 死作蕭家鬼)”이라며 이를 한사코 거절하였다. 이 세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이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이 낳은 친자식처럼 대하며 두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 아들들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評者인 陸雲龍은 題詞에서 이들 세 부인을 칭찬하여 ‘이 세 부인은 훌륭하구나! 내 동생의 붓을 욕되게 하지 않음을 알겠구나 (卓哉三夫人, 知不辱吾弟之筆)’라고 하고 있으며, 작자도 入話에서 절개와 덕을 갖추었다고 칭송하고 있다.

만약 첩 보기를 자매와 같이 하고, 남의 자식보기를 자기자식 보는 것처럼 하며, 죽을 때까지 굳게 지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찌 절개와 덕을 갖춘 것이 아니겠는가?

若是視妾如姊妹, 視他人子如己子, 能死守不變, 豈不是有節有德?(제16회 p221)

작자와 평자는 자신들의 어머니도 남편이 죽자 자신들을 훌륭히 키운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守節하는 것을 부녀의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여 이와 같이 貞節을 지켜 烈女가 되거나 節婦가 된 여인들을 칭송하였다. 즉 여자는 결혼을 하면 ‘嫁鷄隨鷄(닭에게 시집가

---

51) 《型世言》 제16회 回末에 “李南洲少卿爲他作《雙節傳》”이란 기록이 있으며, 楊愼이 <內江蕭氏雙節記> 篇末에 《雙節傳》의 내용을 인용하였다.(權寧愛, 앞의 논문, p101~103)

면 닭을 따르고 개에게 시집가면 개를 따른다)의 사상에 따라 남편이 죽으면 종신토록 수절을 하거나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18회는 남편을 독려하여 성공시킨 부인 王季蘭의 이야기인데<sup>52)</sup>, 작자는 入話에서 戰國時代 樂羊子の 부인이 남편이 공부를 소홀히 하여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짜고 있던 베를 잘라 남편을 각성시킨 이야기를 하면서 王季蘭역시 賢哲하여 남편을 성공시켰다며 칭송하고 있다.<sup>53)</sup> 남편 李實甫는 어린 나이에 청렴한 관리였던 아버지가 죽고 집안이 궁핍하게 되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도 글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끝내 공명을 이루지 못하여 동네 부랑배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마침 아버지와 科擧동기인 태수 王翊庵가 還鄉하였는데 우연히 李實甫의 재주가 비상함을 보고 막내딸 王季蘭과 혼인시켰다. 그러나 李實甫의 환경은 그녀의 형제들보다 넉넉하지 못하여 항상 그들의 무시와 비웃음을 받았다. 그러던 중 王太守의 생일날 王季蘭은 그녀의 형제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李實甫에게 자신의 비녀를 뽑아주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그치게 된다.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처함에 있어 세상을 비웃는 것은 무방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당신은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서 심한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어찌서 분발하여 뜻을 세우고 공명을 이루려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으로 당

52) 陸雲龍은 題詞에서 “此出《異紀》，君翼衍而成書”라고 하였는데, 李實甫는 바로 李裕(1424~1511)를 가리키는 듯 하다.(《型世言》，中華書局，1993. 7, p568)

53) 이렇게 가난에서 부귀하게 되는 고사를 ‘發跡變態’라 한다. 일반적인 發跡變態의 고사는 가난하거나 어려서 부모를 잃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동기를 부여받아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결국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신이 여비로 쓰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저를 위해 성공하십시오. 노모는 나이가 많아 黃河가 맑아지는 것을 기다리기 어려우니, 지금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봉양하고, 콩죽과 물로 참아내며 당신의 마음을 얹매지 않겠습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만나지 않겠습니다.

丈夫處世，不妨傲世，却不可爲世傲。你今日爲人奚落可爲至矣，怎全不激發，奮志功名？以此爲君資斧，可勉力功書，爲我生色。且老母高年，河清難待，今我爲君奉養，菽水我自任之，不縈君懷。如不成名，誓不相見。(제18회 p254)

이런 아내에게 자극을 받은 實甫는 굳은 결심을 하고 글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결국 과거에 합격하여 부인의 내조와 覺醒으로 吏部尙書에 올라 공명을 이루었다. 물론 李實甫 역시 자신만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으나 작자는 季蘭의 내조를 더욱 강조하여 그녀의 도움으로 인해 결국 소망하던 공명을 이루었다고 하고 있다.

작자는 이렇게 節婦가 되거나 남편을 따라 죽어 貞節을 지키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조를 다하였던 이들을 소개하여 당시의 失節하고 부도덕한 여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태에 대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고 유교사상을 선양하였다. 明末 시기는 貞操를 지켜야 한다는 貞節觀이 조금씩 쇠퇴하여 남편이 죽으면 바로 再嫁를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심지어는 성적 쾌락을 만족시켜 주지 않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통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따라서 작자는 이와 같은 고사를 인용하여 “여자는 마땅히 덕과 절개를 중심으로 삼아야 하며” 失節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비롯된 것이며 작자는 이들 고사를 통하여 당시 부도덕한 여인들에게 貞節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 4) 義

義를 소재로 한 故事는 비교적 많은 편이며 친구, 형제, 남녀, 主從 사이 등 다양한 義理를 가송하고 있다. 제1회 <烈士不背君 貞女不辱父>, 제5회 <淫婦背夫遭誅 俠士蒙恩得宥>, 제7회 <胡總制巧用華棣卿 王翠翹死報徐明山>, 제8회 <矢智終成智 盟忠自得忠>, 제11회 <毀新詩少年矢志 訴舊恨淫婦還鄉>, 제12회 <寶釵歸仕女 奇藥起忠臣>, 제13회 <擊豪強徒報師恩 代成獄第脫兄難>, 제14회 <千秋盟友誼 雙璧返他鄉>, 제15회 <靈臺山老仆守義 合溪縣敗子回頭>, 제19회 <捐金有意怜窮 卜屯無心得地> 제20회 <不亂坐懷終友托 方培正直抗權奸> 등이 義를 소재로 하였다.

제1회는 鐵尙書의 도움을 받고 후에는 鐵尙書와의 의리를 지켰으며 제7회의 王翠翹는 徐明山과의 신의를 지켜 강물에 뛰어든 義俠 여인이었다.<sup>54)</sup>

제5회에서는 俠士 耿植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耿植은 술주정뱅이 董文의 처인 鄧씨와 사통하다 鄧씨의 박정함을 보고 그녀를 죽여 義士가 된 사람이었다.<sup>55)</sup> 董文은 鄧씨에게 모진 구박을 받아도 부인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애처가였다. 耿植은 鄧씨가 이런 董文을 박정하게 대하고 耿植을 꼬득여 董文을 없애려는

---

54) 王翠翹와 徐海(즉 徐明山)의 고사는 明代에 오랫동안 유전되던 傳奇로 최초로 이를 다룬 것은 茅坤의 《紀剿除徐海本末》이다. 通俗小說에서 이 고사를 다룬 것은 《型世言》 이외에도 周清原의 《西湖二集》 제34회 <胡少保平倭戰功> 등이 있다.(《型世言》, 中華書局, 1993. 7, p566참고)

55) 이와 비슷한 고사는 唐代 沈亞之의 《馮燕歌》에서도 보이지만 이 고사는 明代에 발생한 일을 근거로 한 것이다. 陸容은 《菽園雜記》卷3에서 洪武년간에 京城의 校尉가 박정한 淫婦를 살해하고 자수하여 사면을 받은 고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陸人龍은 이를 永樂년간 北京 校尉의 일로 개작하였다. (《型世言》, 中華書局, 1993. 7, p566참고)

것을 보고 鄧씨를 不義한 淫婦라 여겨 평소의 恩情은 생각지 않고 그녀를 살해하였다. 나중에 官府에서 무고한 물지게꾼 白大를 살인자로 몰아 사형시키려는 것을 안 耿堉은 자수하여 성은을 입고 사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不義한 淫婦를 죽인 俠士가 되었다. 鄧씨는 남편인 董文이 아무리 자신을 잘 대해준다 하더라도 매일 술에 취해 있어서 鄧씨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사통했고 또한 그런 남편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살해를 당했어도 당연한 대가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耿堉이 자신과 사통했던 淫婦를 살해하고도 俠士란 칭호를 얻게 된 데에는 禮敎가 중시되던 봉건사회라는 것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기혼여성이 성적 만족을 위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통하는 淫婦는 유교적 관점에서는 용서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누구하나 鄧씨의 죽음을 측은해하지도 않았으며 白大가 살인범으로 몰려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는 그의 부인마저 淫亂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던 것이다. 반면 耿堉은 비록 鄧씨와 사통을 했음에도 결국 淫婦를 처치했기 때문에 그 죄를 사면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失節하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큰 죄였던 것이다.

작자는 또한 친구간의 신의가 없어지고 우정이 점점 퇴색해 가는 현실을 마주하여 다음과 같이 우정의 박정함을 비판하고 있다.

재산이 다 떨어지면 사이가 멀어지고 권세가 떠나면 우정을 끊는다. 이익을 보면 서로 다투고 위기에 처하면 서로 모른 척한다.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다가도 목을 베어버릴 수 있고 급한 일에 처하게 되면 곧 자기의 이익만 돌보게 된다. 우리 朝代의 환관인 李廣이 총애를 얻자 친구가 곧 그를 받들어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평소에 함께 道學을 공부하던 두 명의 친구가 있었

는데 李廣이 총애를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 환관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날 이 사람은 다른 한 친구를 배신하고 그에게 알현하러 갔더니 뜻밖에도 다른 친구가 먼저 거기에 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다. 바로 작년 환관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楊漣과 左光斗를 공격한 사람들 중에는 양련과 좌광두의 친구가 있었고 崔呈秀와 魏忠賢을 탄압한 사람들 중에 최씨와 위씨의 친구가 있었다. 이렇듯 일부러 사람을 해치려는 것은 어찌 한 순간의 손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원래 이런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하며 그런 사람들을 사귀는 사람은 안목이 없고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財盡交疏，勢移交斷；見利相爭，見危相棄；忽然相與，可叫匆頸。一到要緊處，便只顧了自己。就如我朝閣臣李廣得寵，交結的便傳奉與官。有兩個好朋友，平日以道學自勵的。談及李廣得寵之事，一個道，“豈有向閣奴屈膝之理？到次日，這個朋友背了他去見時，不料已先在那里多時了。此是趣利。就是上年逆璫用事時，攻擊楊、左的，內中偏有楊、左知交；彈射崔、魏的，內中偏有崔、魏知己。此豈故意要害人，不過要避一時之害。不知這些人原也不堪爲友，友他的，也就是沒眼珠，不識人的人。(제20회 入話 p270~271)

작자는 이렇게 우정의 박정함을 비판하고 이와는 반대로 친구간의 신의를 잘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간의 신의를 잘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제8회는 程濟와 高翔, 제12회는 李時勉과 王指揮官, 제14회는 王冕(자는 孟端)<sup>56)</sup>, 제20회는 秦鳳義<sup>57)</sup> 등이 친구간의 신의를 지킨 이야기이다. 이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만사를

56) 《明史》에 王冕에 관한 고사는 卷285 <文苑傳>과 卷290 <忠義傳>에 전한다. (權寧愛, <型世言研究>, 私立東吳大學 박사논문, 1993. 6, p98~99참고)

57) 친구의 부탁으로 妙齡의 소녀와 함께 경성으로 가는 배 안에서 조금도 마음도 동하지 않은 이와 같은 고사는 元末明初 陶宗儀의 《輟耕錄》卷4<不亂附妾>에 보인다.(權寧愛, 앞의 논문, p105~106참고)

제쳐두고 달려가 그들을 돕는 등 친구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예를 들면 高翔과 王孟端은 그들의 친구들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들의 옥 뒷바라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王孟端은 친구가 먼 타향에서 딸들을 부탁한다는 편지를 받고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기꺼이 달려가기도 하였다. 제20회의 秦鳳義는 과거를 보러 가다가 찾아간 石不磷에게서 竇주사에게 그의 첩을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아 한달 여 동안 조그만 배에서 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결코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친구간의 의를 지켰다. 이에 감복한 竇主事는 秦鳳義가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지로 발령이 나서 상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에 知府로 부임하여 그를 도와주었다.

작자는 이와 같은 故事를 소개함으로써 친구간의 우정은 富貴나 貴賤보다 중요한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친구의 재산을 보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그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면 서로 모른 척 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15회의 花紋과 甘蠶 등은 친구 沈剛이 부유할 때는 매일 함께 다니며 그를 속여 도박 돈을 따로 챙기기도 하고 그와 함께 주색잡기를 즐겼었는데, 沈剛이 가산을 모두 탕진하자 沈剛을 보고도 모른척했으며 만날 때마다 바쁘척하여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제23회의 姚明은 재물을 탐하여 친구를 살해하기도 하였다. 작자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는 친구간의 신의는 재산이나 권세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제11회의 陸容(자는 仲畝)은 아버지의 친구인 謝度城와의 의리를 지켰다<sup>58)</sup>. 그는 謝度城의 아들 謝鵬의 가정교사로 그의 집에 머무르고 있

58) 陸仲畝에 관한 기록은 焦竑의 《國朝獻徵錄》에 程敏政의 <參政陸公傳>이

었는데 그 집 딸인 芳卿은 陸仲숨을 보고 반하여 그를 유혹하였다. 陸仲숨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어머니의 병을 핑계로 가정교사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삼년 후 陸仲숨은 우연히 기생집에 있는 芳卿을 만났다. 그녀는 陸仲숨 다음으로 온 가정교사와 사통하다 임신을 하게 되고 함께 도망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녀를 기방에 팔아버린 것이었다. 陸仲숨은 芳卿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속량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처와 하인도 구해주었다. 친구들이 그녀와 함께 지낼 것을 권했지만 그는 “처음에도 그녀를 범하지 않았는데, 어찌 마지막에 그녀를 범할 수 있겠느냐?(我不亂之于始, 豈可亂之于終?)”며 같은 여관에 묵으면서도 芳卿에게는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었다. 마침 朝見하러 온 그녀의 외삼촌에게 부탁하여 芳卿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며, 陸仲숨은 이와 같은 陰德으로 시험에 연속으로 합격하였다. 陸仲숨은 자신을 유혹하는 芳卿에게 “節義를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만일 오늘 그대로 하여금 몸을 잃게 한다면 이는 바로 失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대와 사통한다면 이는 不義하는 것입니다.(節義二字不可虧. 若使今日女郎失身, 便是失節; 我今日與女郎苟合, 便是不義)”라고 타일렀으며, 아무 말 없이 謝家를 떠났고 나중에도 그녀를 도와 고향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아버지 친구와의 義理를 지켰다.

작자는 여기서 아버지 친구와의 신의를 지킨 陸仲숨을 칭찬하면서도 자유연애를 위해 집을 떠난 芳卿에 대해서는 淫婦라고 비난하고 있다. 芳卿은 才貌를 겸비한 여인으로 자유연애와 혼인을 동경하며 남들과 같이 부모나 중매쟁이의 말대로 시집을 가야 하는 현

---

있고, <浙江布政使司右參政陸公容墓碑>에도 그에 관한 생평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本朝分省人物考》와 《杭州府志》에도 그 기록이 보인다.(權寧愛, 앞의 논문, p93~95참고)

실을 한스러워 하였다. 芳卿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陸仲숨을 유혹했지만 끝내 이를 거절당했고 결국 작자로부터 淫婦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陸仲숨이 芳卿의 이러한 유혹을 단호히 것은 陰德이며 이 때문에 과거에 합격하여 높은 벼슬에 오른다고 하여 작자는 청춘남녀의 순수한 사랑과 자유연애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작자는 또한 부모의 편애나 동서간의 불화, 친구들간의 이간질 및 종들의 꼬임으로 인해 형제간의 사이가 멀어져서 결국 소송까지 벌이고 원수지간이 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애 깊은 姚巨仁, 姚利仁 형제를 소개하여 세상사람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15회에서는 주인과의 신의를 지킨 老僕 沈實의 고사를 다루고 있다.<sup>59)</sup> 沈實은 주인이 죽으면서 부탁한 그의 아들 沈剛이 친구들의 꾀임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만류하다 결국 沈剛에 의해 쫓겨났으나 황무지 산을 잘 운영하여 沈剛이 재산을 탕진하여 의지할 데가 없어졌을 때는 또 그를 도와 공명을 이루도록 하여 주인과의 신의를 지킨 것이었다.

제19회는 우연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 후에 이 음덕으로 명당 자리를 구하여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길에 오른 林森甫의 故事이다. 그는 집안이 가난하여 가정교사 일을 하다 1년이 되어 사례비를 받고 명절을 지내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에 뛰어들어 자결하려는 여인을 보고 자신이 갖고 있던 사례비를 전부 건네주었다. 그녀는 支佩德의 부인으로 고리대금업자의 빚 독촉을 피해 자결하려던 것이었다. 명절이 지나고 다시 가정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

59) 涵芬樓本 《說郛》卷23에 宋 沈微의 《諧史》를 인용하여 四明戴家の 老僕인 楊忠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15회의 故事이다.(《型世言》, 中華書局, 1993. 7, p567참고)

조상의 묘를 풍수 좋은 곳으로 옮기면서 풍수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林森甫에게 관리가 나올 만한 땅을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支佩德의 황무지 땅이었다. 支佩德은 예전에 도움을 받은 것을 생각하여 이 땅을 기꺼이 林森甫에게 주어 조상의 묘를 옮기게 하였다. 林森甫는 그 해부터 연속으로 각급 시험에 연속으로 합격하였으며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학문의 수준이 충분했던 탓도 있겠지만 남의 어려움을 모른척하지 않고 陰德을 베푼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林森甫가 자신의 형편도 좋지 않아서 공부를 잠시 제쳐두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교사 일을 하고 받은 돈을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를 피해 자살하려 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건네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작자는 이렇게 친구, 男女, 兄弟, 主從 사이 등 여러 형태로 信義를 지킨 사람들의 고사를 소개하여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만한 틀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도 이들을 본받아 “義”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型世言》의 전반부는 忠孝節義라는 봉건 윤리도덕을 선양한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인물들을 제시하여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을 본받아 善行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明末의 어지럽던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또한 작자는 回目에서도 ‘不背君’, ‘不辱父’, ‘一死曲伸國法’, ‘片肝頓蘇祖母’, ‘孝子生還老母’, ‘盟忠自得忠’, ‘孝子逢親’, ‘忍死殉夫’, ‘老僕守義’, ‘抒忠靖賊’, ‘不亂坐懷’ 등의 贊語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義士, 孝子, 忠臣, 烈女, 節婦등을 가송하고 있는데<sup>60)</sup> 이로써 ‘樹型今世’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忠孝節義를 잘 지킨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전통

60) 歐陽代發, 《話本小說史》, 武漢出版社, 1997.6. p309 참고

적인 유가사상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제1회의 鐵尙書, 高賢寧, 鐵尙書의 두 딸은 모두 유교적 집안 출신들이며, 제2회의 王世名도 어려서부터 유가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 제4회의 陳妙珍도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祖母에게서 고금의 節婦, 烈女와 孝女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제6회의 唐貴梅도 유교 집안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孝經》이나 《烈女傳》을 읽었다. 반면 선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러한 유교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팔아버린 掌珠의 경우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訓教를 받지 못했으며,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다. 또한 봉건 윤리도덕에서는 허락지 않는 부녀자의 바깥출입도 마음대로 하여 결국 이웃사람들의 꼬득임으로 시어머니를 멀리 팔아 버리는 不孝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즉 작자는 선행을 행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의 교육을 한 두 줄만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처럼 선행을 행하려면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작자는 결국 유교사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不孝, 不忠, 不義, 失節 등의 모든 옳지 못한 행위를 바로 잡아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틀'을 제시함으로써 그들도 효성스런 자식, 충성스런 신하, 의리를 지키는 사람, 정절을 지키는 여인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유교사상의 선양과 대중의 교화라는 점을 너무 강조한 독자들이 故事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자신이 직접 작품 속에 개입하여 직접적인 설교를 함으로써 오히려 작품의 예술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작자는 전통적인 봉건윤리도덕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이와 같은 고사들을 통하여 유가사상을 선양

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型世言》에서는 오로지 忠孝節義를 충실히 행한 사람들은 가송했으며, 이와 반대로 전통적인 결혼관념을 따르지 않고 자유연애를 추구하고자 했던 芳卿이나 남편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다른 사람과 사통했던 鄧씨를 모두 淫婦라고 비난하였다. 이는 明 중엽이후 상업의 발달과 시민계층의 성장과 맞물려 금전만능주의라든가 성적 쾌락의 추구 등만을 위하고 전통적인 유가사상은 소홀히 대하려 하는 세태에 대한 작자의 경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勸戒類

작자는 明末의 대혼란이 또한 탐욕에 기인한다고 인식하여 당시 世人들이 財色을 탐하는 것을 제재로 삼아 그들을 勸戒하고자 하였다.<sup>61)</sup> 따라서 작자는 제21회에서 제36회까지(제34회 제외)는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도적, 건달, 흉악범, 사기꾼, 승려, 관리 등 부정적인 인물들을 다루었으며, 이들이 결국 그 죄에 합당하는 懲罰이나 應報를 받게 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을 勸戒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 15회를 다시 貪財와 貪色, 其他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貪財 : 제22 · 23 · 24 · 25 · 27 · 29 · 30 · 32 · 33 · 35 · 36회
- 貪色 : 제21 · 26 · 27 · 28 · 29 · 30 · 31회
- 其他 : 제24 · 28회

### 1) 貪財

明 중엽이후는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연경제가 붕괴되고 金錢이 사회에서 점차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sup>62)</sup> 이에 따라 금전만

61) 劉美源, <型世言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5. p83 참고

능주의가 유행하게 되었으며 관리는 관리대로 백성들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돈을 주어 대리시험을 보게 하기도 하고 돈으로 관직을 사기도 했으며, 돈만 있으면 叔父도 살해할 수도 있는 등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일이 해결될 정도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財物에 대한 욕심이 커졌으며, 작자는 이를 勸戒하고자 貪財하다 결국 그에 합당한 懲罰이나 應報를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貪財를 소재로 한 것들로는 제22회 <任金剛計劫庫 張知縣智擒盜>, 제23회 <白鏹動心交誼絕 雙猪入夢死冤明>, 제24회 <飛檄成功離脣齒 擲杯授首殪鯨鯢>, 제25회 <凶徒失妻失財 善士得婦得貨>, 제27회 <貪花郎累及慈親 利財奴禍貽至戚>, 제29회 <妙智淫色殺身 徐行貪財受報>, 제30회 <張繼良巧竊篆 曾司訓計完璧>, 제32회 <三猾空作寄郵 一鼎終歸故主>, 제33회 <八兩銀殺二命 一聲雷誅七凶>, 제35회 <前世怨徐文伏罪 兩生冤無垢復讎>, 제36회 <勘血指太守矜奇 賺金冠杜生雪屈> 등이다.

제22회<sup>63)</sup>의 任金剛, 張志, 任敬 등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결국 錦衣衛 校尉를 사칭하여 관가의 창고를 털려다가 결국 합당한 죄가를 받았으며, 제23회의 姚明은 도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朱愷를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려다가 殷知縣이 꿈 돼지꿈으로 죄가 밝혀졌다.<sup>64)</sup> 제29회의 徐行과 徐州同

62) 李炫姪, <《型世言》題材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12. p49  
참고

63) 이 회에서 도적들을 소탕한 사람은 張佳胤으로 明 嘉靖29년에 進士가 된 당시의 유명하고 유능한 관리였으며, 《明史》권222에 그 傳이 전한다. 錦衣衛 差官을 사칭한 강도를 잡은 이 이야기는 《本朝分省人物考》卷108에 보인다.(權寧愛, 앞의 논문, p114참고)

64) 제23회는 殷雲霄(殷知縣)가 朱愷가 피살된 사건을 처리하는 고사로 崔銑의 <殷公雲霄墓地銘>에 전하여 이는 焦竑의 《國朝獻徵錄》에 수록되어 있다(《型世言》, 中華書局, 1993. 7, p568 참고). 다른 연구자들은 제22회와 제23회를 公案故事로 나누어 다루고 있으나 필자는 貪欲을 저지른 任金剛 등과

역시 妙智 스님 등이 절 안에서 여자들과 사통하는 것을 빌미로 재물을 탐하다가 徐州同은 헛것을 보고 병으로 죽었고, 徐行은 부인을 의심하여 살인한 죄로 옥사하였다. 제36회의 張三 역시 도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했다가 화를 입었으며 사이 좋던 두 집안을 소원하게 만들었다.

任金剛 등은 평소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헛되이 도적질과 강탈로 부를 이루려다 결국 죄를 받음으로써 “불의한 재물을 탐하려고 한 귀감이 되었으며(這也可爲圖不義之財的龜鑑)”, 姚明은 금전에 눈이 멀어 친구간의 우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富貴를 탐하여 친구의 목숨은 돌보지 않았으며, 張三은 남의 재물을 탐하여 사이 좋던 두 집안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제23회의 回末評에서도 ‘이득 때문에 모인 사람은 이득 때문에 망하는 것이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以利合者, 以利而敗, 豈不然哉)’라 하여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여 不義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제25회는 崇禎 원년 해일이 일어났을 때 생긴 고사인데, ‘재물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재산과 부인을 잃고,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사람과 재물을 얻은(主意謀財的, 却至于失財失妻; 主意救人的, 却至于得人得財)’ 이야기를 하여 세상 사람들을 勸戒하고자 하였다. 선한 마음을 지닌 朱玉은 물난리에 떠내려오는 사람을 구하여 아내와 재산을 얻고, 이익만을 쫓았던 朱安國은 결국 자신의 정혼녀와 재물을 잃었다.

작자는 朱安國과 朱玉이라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을 제시하여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결국 좋은 일이 생기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

姚明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勸善懲惡사상은 통속소설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陸人龍 역시 이것으로써 敎化和 勸戒의 제재로 삼고 있으며 ‘勸戒類’의 대부분의 故事는 이러한 勸善懲惡의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제27회의 錢流(자는 公布)는 陳鏞의 가정교사로 속임수를 써서 그의 돈을 갈취하려고 친척을 연루시킴으로써 그 화가 자신은 물론 친척에까지 미치게 하였다. 錢公布는 원래 杭州를 오가며 대리시험을 쳐주던 사람이었다.

그는 秀才가 되어 이런 현명하지 못한 것들을 배우지 않고, 밤낮으로 관아에 가서 스스로 체면을 손상시키게 되자, 杭州를 왕래하며 대리시험을 쳐주었다. 한번 시험을 보는데는 卷당 三兩, 한 명만을 받는 데는 편당 5錢을 받았다. 만약 컨닝페이퍼를 원한다면 1首에 3錢씩 받고, 府에 가는 가격은 훨씬 비쌌다. 한번 시험을 보는 것은 장사를 한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또 수당을 주는 때가 되면 그는 오히려 本府에서 출생지나 호적을 속이는 것을 전담하고 있어서, 서로 짜고 남을 속이기도 하였다. 그는 직접 杭州·嘉州·湖州的 부자집 자제들의 대리시험을 쳐주고, 進學을 하면 300량을 받았다. 그는 재능 있고 대담하여 이 일에 겁을 내지 않는 수재들을 직접 찾아서 이 부자집 자제들의 이름으로 시험을 보게 하여, 180량은 대리시험을 본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120량은 그가 갖는다. 시험을 보는 것도 또한 이들이며, 進學을 하면 오히려 부자집 자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한 글자도 모르면서도 이미 秀才가 되어 있게 된다. 돌아올 때는 깃발을 높이 세우고, 북을 요란하게 치면서 친척과 이웃들에게는 다른 지방의 戶籍으로 進學을 했다고 말한다. 또 1,2년 있다가 宗師가 새로 바뀌게 되면 소송장을 제출하여 원래의 호적으로 바꾸는데, 어찌 秀才가 안 될 수 있겠는가?

他做秀才, 不學這些不肖, 日夕上衙門壞體面, 只是往來杭州代考. 包覆試三兩一卷; 止取一名, 每篇五錢; 若只要黑黑卷子, 三錢一首.

到府間價又高了. 每考一番, 來做生意一次. 及至幫補了, 他却本府專保冒籍, 做活切頭<sup>65</sup>, 他自與杭、嘉、湖富家子弟包倒. 進學三百兩, 他自去尋有才冇膽不怕事秀才, 用這富家子弟名字進試, 一百八十兩歸做文字的, 一百二十兩歸他. 覆試也還是這個人, 到進學却是富家子弟出來, 是一個字不做, 已是一個秀才了. 回時大張旗鼓, 向親隣道冒籍進學. 又捱一兩年, 待宗師新舊交接時, 一張呈子, 改回原籍, 怕不是個秀才?(제27회 p367~368)

당시 과거제도에 대한 비리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錢流도 공공연하게 대리시험을 보거나 혹은 대리시험을 칠 사람을 주선하여 돈을 벌고 있었으며, 제15회에서는 '형, 삼백량만 있으면 어찌 수재가 안되겠습니까? 이런 고생을 하다니(哥, 有了三百兩, 怕不是個秀才? 討這等苦!)'라 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비웃기까지 하였다. 또한 제6회에서는 130냥이면 生員을, 600냥이면 貢生의 자리를 살수 있다고 하여 실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錢流는 상당히 교활한 인물로 陳鑣의 아버지가 陳鑣의 글솜씨를 시험할 때마다 찾잔 아래에 글을 적어 놓거나 붓 관속에 글을 집어 넣는 등 속임수를 써서 교묘히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어 가정교사 일을 계속하고 陳鑣에게는 보너스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陳鑣는 錢流의 이런 생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陳鑣가 신발장이의 아내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 錢流가 신발장과 그의 친척들과 함께 도모하여 사기를 치게 된 것이었다. 錢流는 陳鑣가 신발장에게 주는 상당한 양의 돈과 물건을 중간에서 가로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사칭한 친척들을 이용하여 돈을 더 갈취하려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고 자신은 물론 그 친척들까지도 화를

65) 朴在淵은 <《型世言》 연구>, 《중국학논총》 제4집, 충청중국학회, 1995. 4, p126에서 '活切頭'의 의미를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과거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형용하는 말인 듯 싶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입게 하였다.

작자는 入話에서 ‘교묘하게 권력을 훔친 사람은 宦官 魏忠賢인데 자신은 磔刑에 처해지고 집안은 어질러져 자식들과 조카들은 죽거나 徒刑에 처해졌다. 교묘하게 권세에 빌붙어 아부하던 崔尙書 일당들 중 崔尙書는 죽임을 당했으며, 그 나머지는 充軍을 가거나 問徒를 당하거나 파직당했다(巧竊權是宦官魏忠賢, 只落得身磔家藉, 子侄死徒; 巧趨附是崔尙書一流, 崔宦戮尸, 其余或是充軍, 或是問徒, 或是罷職)’라고 하여 교활하게 남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속이지 말 것을 勸戒하고 있다. 또한 錢流의 고사를 이용하여 당시 만연한 과거제도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으며 또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魏忠賢과 그에게 빌붙어 아부하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제30회의 張繼良은 여자처럼 예쁜 자신의 미모로 何知縣과 陳代巡의 총애를 사서 縣의 일에 관여하여 사람들로 부터 뇌물을 받음으로써 재물을 탐한 사람이었다.

나중에는 수법이 점점 교활해지고 대담해져서, 사람들이 訟事가 있어 訴狀을 내게 되면 그는 소매 안에 넣었다가 돈을 받고 서야 비로소 보낸다. 좋은 送狀인 경우 그는 뒷돈을 받아 챙기고는 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하는 곳을 거치지 않고 접수하여 마침내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한다. 그가 일년 안에 갑부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에게 빌붙어 국물을 챙기는 서리, 皂甲들 까지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다.

到後他手越滑, 膽越大, 人上告照呈子, 他竟袖下, 要錢才發. 好狀子他要袖下, 不經承發房掛號, 竟與相知. 莫說一年間他起家, 連這幾個附着他的吏書、皂甲, 也都發迹起來.(제30회 p421)

六房의 일 전부를 그가 처리하였다. 訴訟이 들어오면 모두가 그를 만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간청하였고, 소송사건 또한 何知縣에게 물을 필요 없이 단지 그가 돈을 받기만 하면 승낙된 것이고 그가 승낙하면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다. 何知縣은 단지 사무실에서 앉아 쓰기만 하면 그뿐이다. 일년동안 설사 천만의 재산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두 그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면 徭役을 보내버리고 告訴해오면 반드시 그들을 깨끗이 없애버려 목숨을 부지하려면 또한 좋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縣에서는 모두 그를 “집을 부수는 도끼”, “살인망나니”라고 하였다.

六房事, 房房都是他, 打官司沒一個不人上央人來見他. 官司也不消何知縣問得, 只要他接銀子時仔么應承. 他應承就是了. 一個何知縣只才堂上坐得坐, 動得動筆罷了. 一年之間, 就是有千萬家私迹, 到他手里. 或是陷他徭役, 或人來出首, 一定拆個精光, 留得性命也還是絕好事. 縣里都傳他名做“拆屋斧頭”、“殺人劊子”. (제30회 p429~430)

張繼良은 나중에 벼슬에 있으면서도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訟事를 처리하다가 鄉紳들과 백성들의 불만을 사서 결국은 充軍을 가게 되었고 가족들은 타향에서 떠돌게 되었다. 이것은 동성연애자들인 何知縣과 陳代巡에게 잘 보임으로써 백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縣의 일들을 자신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백성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다 화를 당한 張繼良의 당연한 인과응보라 할 수 있다.

작자는 張繼良이 何知縣과 陳代巡의 총애를 받아 관장의 일을 주관하는 일을 말하면서 결국은 당시 부패한 관료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즉 張繼良은 사실 아무 직책도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음에도 관장의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 백성들로부터는 뇌물을 받음으로써 何知縣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다. 사실 당시

관장의 비리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곤장을 살살 쳐주겠다고 하며 杖錢을 받았으며, 일부러 고생을 시켜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사건을 심의할 때도 돈을 주어 검시관이나 관리 등을 매수하면 가벼운 죄로 받거나 혹은 아예 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 작자는 이렇게 張繼良의 행적을 통하여 당시 만연하던 관장의 비리를 폭로하여 작가의 사회적 의식을 드러내었다.

제32회는 龍紋鼎을 서로 차지하려고 각각 돈, 사기, 권세를 이용했던 詹博古, 詹博古, 孫監生이 아무도 이를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龍紋鼎은 원래의 주인인 任天廷에게 돌아갔다는 故事이다. 任天廷은 과거장의 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때 아버지의 심복이었던 水心月이 찾아와 지금의 세태를 한탄하며 골동품이라도 팔아 돈이 있어야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충고하였다.

지금의 세태는 돈만 따지지 글재주는 따집니까? 주에서는 반드시 뇌물을 요구하는데, 만약 (돈을 주지 않고) 글재주에만 의존한다면 아무리 잘 쓴 문장이라 하더라도 쳐다보지도 않을 테니 어찌하겠는가?

如今時勢，只論銀子，那論文才？州中斷要分上。若靠文字，便是綿綉，他只不看怎處？(제32회 p449)

이에 任天廷은 관리가 되기 위해 龍紋鼎을 팔아 돈을 마련하였고 詹博古, 詹博古, 孫監生은 서로 이를 차지하기 위해 찾아내어 돈과 사기, 권세를 이용했지만 결국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온다고 하여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탐을 내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여기서도 작자는 실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돈이 없으면 과거에서 합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당시 科擧비리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것이

다. 이것은 아마도 任天廷처럼 돈이 없어서 관리가 되지 못했던 작자 형제의 실제상황과도 비슷하여 더욱 더 현실감 있게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陸人龍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陸人龍도 형처럼 科擧에 뜻을 두었는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사대부라면 누구든지 科擧를 통하여 공명을 이루려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陸人龍 역시 과거에 대한 미련이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작자는 여러 故事에서 이러한 科擧場의 비리나 혹은 매 관매직 현상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제33회는 제목에서도 대충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듯이 8량을 훔치고 母子를 죽인 7명이 벼락을 맞아 죽은 故事이다. 阮勝은 전형적인 농민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租稅 담당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 생활이 항상 힘들었다. 더군다나 어머니와 자신이 병이 들어 이틀에 두끼 먹을 양식도 없게 되어 결국 부인을 팔아 살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sup>66)</sup> 그러나 마을의 불한당인 花芳은 阮勝의 아내를 차지 못한 데 대한 보복으로 鮑雷과 이웃사람 다섯과 함께 阮勝의 집에 들어가 그들 모자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6명에게 1.3씩 나누어 주었다. 阮勝의 아내가 재가한 庾盈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관부에 고발하러 갔던 이들 7사람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어 阮勝 모자를 죽인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阮勝은 阮勝 모자가 租稅관리의 수탈로 인해 가난을 면할 수 없어 결국 부인을 팔게까지 된 이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면서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민들은 관부의 수탈에 시달려 생활이 어려웠으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

66) 집안이 가난하여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어 부인을 판 이야기는 《陳書》에서도 보이며, 清代 羊朱翁이 편집한 《耳輯》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다.(權寧愛, 앞의 논문 p132~133참고)

집안의 돈이 될만한 물건은 전부 저당 잡히고,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거나 심지어는 부인마저 팔아 돈을 마련해야 했던 것이다. 제9회의 王喜는 貧困者 명단에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부인의 치마마저 저당 잡혔으며, 제19회의 支佩德은 결혼을 하기 위해 고리대금업자의 돈을 빌렸다가 부인마저 뺏길 뻔하였다. 고리대금업자의 잔혹한 모습은 제7회에서도 보인다.

祖父는 원래 본토박이 부자로 마을에 사채를 많이 풀어놓고 있었다. 매년 늦겨울이나 초봄에 쌀을 빌려주는데, 현미 한 섬에 양잠이 끝나면 熟米 1石을 돌려 받았다. 4월에 누에 막을 놓을 때 熟米 1섬을 빌려주어 겨울에 은 1량과 이자 5分을 받았다. 은 9錢 5分을 빌리려면, 차용자는 땅이나 집을 저당잡히고, 땅과 집이 다 양도되면, 자기 자신을 저당 잡혔다. 매년 돈을 갚을 때, 갚지 않으면 집안에 매달아 놓고 때리기도 하였다. 맞아 죽으면 원래 몸이 저당 잡혔었기 때문에 남자 고용인이라 하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祖父原是個土財主，在鄉村廣放私債。每年冬底春初將米借人，糙米一石，蠶罷還熟米一石。四月放蠶帳，熟米一石，冬天還銀一兩，還要五分錢起利。借銀九折五分錢，來借的寫他田地房產，到田地房產盤完了，又寫他本身。每年納幫銀，不還便鎖在家中吊打。打死了，原寫本身，只作義男，不償命。(제7회 p97)

고리대금업자들은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때려 죽여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부인을 저당잡히라고 요구하기도 하여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극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작자는 이렇게 자신의 정당한 대가로 재물을 구하려 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탐내다 목숨을 잃거나 벌을 받은 부정적인 인물들의 행적을 소개하여 남의 재산을 탐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응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금전만능주의가 만연하여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세상이라 할 지라도 不義한 재물을 탐하지 말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勸戒하고 있는 것이다.

## 2) 貪色

明 중엽이후 상업 계층이 형성되면서, 상품이 유통되고, 화폐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점점 방탕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일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부부사이의 사랑이외에도 재력이나 속임수를 이용하여 다른 여자를 탐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승려도 있었으며 사촌지간에도 이러한 불륜의 관계가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도 생기게 되었다. 《型世言》은 이들 貪色漢들이 중국에는 모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應報를 받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勸戒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남녀의 사랑보다는 肉欲으로 인한 貪色을 주로 다루고 있다. 貪色을 주제로 한 것들로는 제21회 <匿頭計占紅顏 發棺立蘇呆婿>, 제26회 <吳郎妄意院中花 奸棍巧施雲里手>, 제27회 <貪花郎累及慈親 利財奴禍貽至戚>, 제28회 <痴郎被困名纏 惡髻竟投利網>, 제29회 <妙智淫色殺身 徐行貪財受報>, 제30회 <張繼良巧竊篆 曾司訓計完璧>, 제31회 <陽功吏位登二品 薄幸夫空有千金> 등이며, 남편 이외의 남자와 私通하고 그와 더불어 남편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결국 情夫에게 살해당한 제5회 <淫婦背夫遭誅 俠士蒙恩得宥>의 鄧씨도 貪色에 대한 應報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1회는 사촌간의 불륜을 다룬 고사이다.<sup>67)</sup> 徐銘은 好色漢으로

---

67) 이 회도 다른 연구자들은 公案故事나 良吏明斷故事로 분류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徐行의 貪色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외사촌동생인 愛姐에게 흑심을 품었다. 愛姐의 아버지 柏茂는 술고래이고, 어머니 藍씨는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날 정도로 게을렀는데 徐銘은 외숙모가 아직 자고 있을 아침마다 찾아와 愛姐와 놀다가곤 하였다. 愛姐의 어머니가 이들의 관계를 눈치챘지만 徐銘이 愛姐를 첩으로 달라며 갖다준 장신구를 받고는 오히려 이들이 성행위를 할 때면 망까지 봐주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버지는 簡勝에게 愛姐를 시집보냈는데, 徐銘은 자기 집 유모를 살해하고는 愛姐의 옷을 입혀놓고 그 머리만 관에 넣어 장사를 지내고 愛姐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있었다. 결혼한 지 삼일만에 아내가 죽자 簡勝은 억울하게 살인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 사건을 맡은 石璞이 꿈에 “麥”자를 보고 徐銘이 범인이라 하는 것을 밝혀냈다.<sup>68)</sup>

작자는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한 石璞을 가송하고는 있지만 결국 아름다운 여인을 소유하여 쾌락을 즐기려고 했던 徐銘의 貪色과 愛姐 부모의 잘못 등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柏茂의 술과 藍氏의 게으름은 결국 집안의 명성을 훼손시켰고, 徐銘의 호색은 그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게 했으며, 愛姐의 失節은 恥辱을 초래했다. 이 모든 것은 현명치 못한 것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각성시킬 수 있다.

至于柏茂之酒, 藍氏之懶, 卒至敗壞家聲; 徐銘之好色, 不保其命; 愛姐之失身, 以致召辱; 都是不賢, 可動人之羞惡, 使人警醒積.(제 21회 p297)

제26회의 吳爾揮는 부유하긴 하지만 상당한 구두쇠이며, 그 주변

68) 石璞의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한 기록은 崔銑의 <資政大夫南京都察院左都御史臨漳石公璞傳>이 있다.(權寧愛, 앞의 논문, p111~113참고)

에는 못생긴 여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자만 보면 정신없이 보았다.

고통스러운 것은 집안에서 부인을 만나는 것인데, 나이도 겨우 삼십인데, 뚱뚱하고 거대하게 생겨서 비록 썸 南陽王처럼 몸무게가 800근이 되지는 않더라도 몸무게가 120근이 나간다. 얼굴은 세수 대야처럼 크며, 두 발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신발을 신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방안에는 두 여자 하인이 있는데 한 명은 秋菊으로 나이가 42살이다. 또 한 명은 冬梅인데, 38살이다. 쪽은 머리 위에 길고 비뚤어지게 올리고 슬리퍼를 신고서는 매일 이웃집에 가서 물건을 산다. 옷은 광택이 나는 검은색 적삼을 입었는데, 더럽기가 또 半寸이나 때가 쌓여있다...집안에는 온통 羅刹婆(지옥에서 죄인을 괴롭힌다는 식인귀)와 鬼子母(불교의 신으로 夜叉女神의 하나)만 있으니, 그의 눈은 점점 굵주리게 되어 여자를 만나면 얼빠지게 보게 되었다.

苦是家中撞了嫗人，年紀也只三十歲，却是生得胖大，雖沒有晉南陽王保身重八百斤，却也重有一百廿。一個臉大似面盤，一雙腳夫妻兩個可互穿得鞋子。房中兩個丫鬢，一個秋菊，年四十二；一個冬梅，年三十八。一個髻兒長歪扭在頭上，穿了一雙跛鞋，日逐在街坊上買東買西，身上一件光青布衫兒，齷齪也有半寸多厚。…只因家中都是羅刹婆、鬼子母，把他眼睛越弄得餓了，逢着婦人，便出神的看。(제 26회 p353)

吳爾揮는 張二娘을 보고 반하여 매일 그녀를 훑쳐보았다. 그러다가 마을 부랑배의 속임수에 걸려 張二娘은 차지도 못하고 은 70량을 갈취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만 받았다. 작자는 入話에서 이 故事는 '다른 사람의 美色을 탐냈지만 손에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많은 돈을 사기 당했으며, 자신은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好色漢들에게는 본보기가 된다(貪人美色，不曾到手，却也騙去許多銀子，身受凌辱的，與好色人做個模樣)'고 소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마무리

리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사람이 色欲 때문에 미혹된다면 정취가 확실해질 여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우롱거리가 된다. 만약 吳君이 婦人에게 마음이 없었다면, 악당이 아무리 교묘하다 한들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었겠는가? 婦人을 탐내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니 어찌 양가집 부인을 훑쳐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지 않겠는가? 古人이 다른 사람의 재물은 원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말은 타지 말라는 좋은 말을 했다. 이는 바로 속임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다.

總之, 人一爲色欲所迷, 便不暇致詳, 便爲人愚弄. 若使吳君無意于婦人, 棍徒雖巧, 亦安能誑騙得他? 只因貪看婦人, 弄出如此事體, 豈不是一個好窺瞞良家婦女的明鑑? 古人道得好: 他財莫要, 他馬莫騎. 這便是個不受騙要訣.(제26회 p365)

제27회의 陳鑣(자는 我閑)도 남의 부인을 탐하다가 재물도 잃고 어머니마저 잃었다. 그는 글공부는 하지 않고도 가정교사의 속임수로 아버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글재주를 칭찬받았다. 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던 가정교사 錢流의 속임수에 걸려 전 재산을 잃고 결국 이 사실을 안 어머니마저 자살하게 만들었다.

작자는 吳爾揮나 陳鑣처럼 자신의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미색에 매혹되어 그를 차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속임수를 당하여 재산을 잃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라고 하여 당시 문란했던 性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貪色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28회와 제29회는 승려의 貪色을 다루고 있다. 제28회의 道譽화는 張秀才의 공명을 발원하러 갔다가 염불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을 시중드는 여자 하인들을 범하려 하였다.

후에 蘭馨이 차를 가지고 가자, 그는 차를 받는 척하며 蘭馨을 손으로 만졌다. … 한번은 竹秀가 왔는데,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마침 저쪽에서 불경을 보다가 竹秀를 보더니 히죽히 죽 웃으며 다가와 안았다. …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몸은 다가 가서 손으로 더듬었다.

後來蘭馨去送茶, 他做接茶, 把蘭馨捏上一把. … 一會竹秀去, 他見無人, 正在那邊念經, 見了竹秀, 笑嘻嘻趕來, 一把抱定. … 涎着臉兒, 把身子去送, 手兒去摸.(제28회 p393~394)

제29회의 妙智, 法明, 圓靜은 이보다 훨씬 노골적이었다. 이들은 비구니와 사통하다 이들이 나이도 많고 별로 예쁘지도 않아 妙智와 法明은 아예 절 안에 방을 하나 마련하고 여자를 숨겨두고 밤마다 즐겼다. 法明은 또 마침 불경을 읽어주러 갔다가 다른 여인을 만났다.

남편이 병이 났을 때는 두 사람은 그저 손과 발을 만지기만 하고 몸을 합칠 수는 없었다. 남편이 죽자, 그에게 불경을 읽어 주고, 보시는 전부 기꺼이 외상으로 하고는 틈만 있으면 하였다.

丈夫病時, 兩個就有些摸手摸腳, 只不得攏身. 沒了丈夫, 替他看經, 襯錢都肯賒, 得空便做一手兒.(제29회 p404)

그러다가 아예 절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넷이서 즐겼다. 나중에 이 일을 徐行이 알게되어 이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200냥을 뺏겼으며, 또 徐州同에게는 500냥을 더 뺏기고 결국 옥사하였다.

이들은 스님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비구니나 다른 여인들과 私通하다 결국 이들의 과오가 드러나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목숨마저 보존하지 못하였다.

당시 스님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성애를 즐기거나 혹은 비구니들과 사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염집 부녀들과도 즐기

기까지 하였다. 《型世言》에서도 道譽와 妙智 등의 경우 이외에도 이러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제35회에서는 無盡스님은 얼굴이 예쁜 無垢스님에게 접근하려고 했고, 徐文의 부인은 無垢스님에게 "師公과 徒孫은 부부와 같다고 말을 하던데, 그렇습니까? (說道師公替徒孫, 是公婆兩個一般, 這是有的么?)"라고 묻기도 하였다. 제8회에서도 "어떤 때는 남의 집 문 앞에 앉아서 그의 동태를 살피거나 그 집의 부녀자를 유혹하고, 도둑질을 하거나 강간한다오(有時坐在人家門前, 看他路徑, 誘他婦女, 非盜即奸)"라며 스님과 친하게 지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작자는 이런 점들을 통하여 당시 부패하고 음란한 스님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제31회는 "부유하면 친구를 바꾸고, 귀하게 되면 아내를 바꾼다(富易交, 貴易妻)"는 속담을 실제로 행동에 옮김으로써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한 부인을 팔아 버린 胡似庄의 이야기이다. 그는 그가 예전에 관상을 봐준 徐晞가 甘肅巡撫로 가게 되자 그를 만나러 가기 위해 하루종일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부인을 팔아 그 돈으로 揚州에 가서 아름다운 첩을 구하여 편안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 揚州는 기생이나 첩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다.

揚州지방에는 사람들이 모두 어린 기생을 키운다. 대가집이고 평민이고 간에 모두 여자아이 몇 명을 키우면서 악기연주와 가무를 가르쳐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첩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있으면서, 두 명의 매파를 찾아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가서 수고비로 넣어주면 여러 집에서 돌아다니며 볼 수 있다. 나와서 보이는데, 직접 보기 때문에, 여자의 거동, 몸매, 용모 모두를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다. 그 매파들은 또한 여자의 입술을 젖혀서 치아를 보이고, 소매를 걷어 올려서 손가락을 보이며, 치마를 들춰 다리를 보이고, 또 나이를 물어

여자가 대답하면 그 목소리를 듣게 한다. 50년에서 70년 정도를 내면 온 몸을 다 볼 수 있다.

揚州地方, 人家都養瘦馬, 不論大家小戶, 都養幾個女兒, 教他吹彈歌舞, 索人高價. 故此娶妾的都在這里, 尋了兩個媒媽子, 帶了五七百開元錢, 封做茶錢, 各家看轉. 出來相見, 已自見了, 他舉動、身材、眉眼, 都是一目可了的. 那媒媽子又掀他唇, 等人看他牙齒; 卷他袖, 等人看他手指; 挈起裙子, 看了脚; 臨了又問他年紀, 女子答應一聲, 聽他聲音. 費了五七十個錢, 渾身相到.(제20회 p272)

그는 徐晞를 만나 며칠 지나자 아내를 판 돈과 徐晞가 준 돈을 모두 챙기고 돌아오는 길에 기생집에 들러 며칠을 술로 지내다가 揚州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술에 취해 죽어버렸다. 그는 다른 사람의 관상은 잘 보았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은 알지도 못했으며, 아내를 팔아버린 박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타향에서 죽었지만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어려울 때는 함께 하다가도 편안한 시절은 함께 하지 않으려 한 胡似庄의 당연한 인과응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이는 인물들은 외사촌 여동생을 범하든지, 스님이 여염집 여자들과 사통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부인을 탐하는 등 모두 정상적이지 않은 애정을 추구하려다가 세상 사람들로 부터 비웃음을 당하거나 심하면 죽기까지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작자는 봉건 윤리사상의 선양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貪色이나 貪淫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이 의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모두에게 貪色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好色漢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貪色하지 말 것을 경계시키고 勸戒하고 있는 것이다.

### 3) 其他

작자는 또한 재물과 女色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공명을 탐했던 사람들도 등장시켜 세상 사람들을 勸戒하고자 하였다. 이런 사람들로써 제24회 <飛檄成功離脣齒 擲杯授首殲鯨鯢>의 岑猛과 제28회 <痴郎被困名繯 惡髡竟投利網>의 張秀才가 있다.

岑猛은 중국에 귀순한 오랑캐로 무예가 뛰어나 나라에 정벌할 일이 날 때마다 큰공을 세워 知府에 불과한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도 낭비와 사치가 심했으며 중국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근접한 泗城州와 싸움이 붙었으나 강에 떠오른 바위가 제왕이 날 징조라는 道士의 말만 믿고 자만하여 사치와 낭비를 일삼다가 결국 정부군에게 함락되었다. 岑猛은 자신의 처지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제왕이 될 생각으로 들떠 있다가 변을 당함으로써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는 좋은 반증이 되고 있다.

제28회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다른 것에 의존하여 성공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張秀才는 王師姑의 소개로 道譽화상에게 발원을 하여 아들을 얻었으니 또 발원을 하면 공명을 얻을 것이라 믿고 道譽화상에게 방을 마련하여주고 功名을 발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道譽화상은 발원하는 表와 文牒에 임금의 이름을 적은 것을 빌미로 張秀才를 협박하여 돈과 하인을 요구하였다. 이때 처남 沈爾謨가 이 사실을 알고 知縣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道譽화상은 타살 당했고, 張秀才는 이 일로 功名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이는 회전 小引과 回末評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의지하니 진실로 추하다 할

수 있다. 자신을 믿지 않고 귀신을 믿으니 부끄럽지 않겠는가?  
붓끝의 꽃이 되어 웃음소리가 옆 사람의 말을 깬다.

小引 : …不倚人而倚天, 良可醜也; 不信己而信鬼, 或承羞乎?  
且成筆底之花, 笑破傍人之口.(제28회 小引)

秀才가 스스로 功名을 구하지 않고, 돈과 권세를 빌거나 심지어  
중에게 구걸하니 부끄럽기 그지없구나! 어리석게 속임수를  
당하고 탐욕을 부리다 목숨까지 잃게 되니 이는 모두 오늘날의  
웃음거리로 삼을 만하다.

兩侯曰 : 秀才不會自取功名, 假錢神、借權要, 甚而乞靈和尚, 羞  
之極矣! 愚受局而貪得死, 都可作今笑柄.(제28회 回末評)

즉 張秀才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능력보다는 중에게 의지하여 功名  
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중이 쳐놓은 사기에 걸려 곤경을 당  
하여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전통적인 사대부들  
은 科擧를 통하여 관리가 됨으로써 功名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목표  
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한평생 공부만 하다 그냥 끝나는 사람들도  
허다했고 돈이 많아 대리시험을 통해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돈  
으로 관직을 사는 경우도 많았다. 張秀才의 경우도 功名을 이루고는  
싶고 道譽화상에게 발원을 하여 功名을 이룬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  
고 솔깃하여 그에게 발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張秀才만 유독 어  
리석어서 그의 꼬임에 넘어간 것은 아닐 것이며 張秀才는 그저 당시  
의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자는  
즉 張秀才의 이러한 결말을 비웃고는 있지만 그를 통하여 자신의 실  
력으로 공명을 이루는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부에는 유교사상을 충실히 이행  
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에 비해 후반부에는 대부분 보편적인 道德  
에 위배되는 행동을 저지른 사회의 부정적 인물들이 중점적으로 등

장하고 있다. 이들은 재물을 탐하다가 자신이 목숨을 잃거나, 친척들까지 연루시켰으며,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또 색을 탐하여 부인을 팔기도 했으며, 돈을 잃기도 하였으며, 지나친 탐욕으로 목숨도 잃기도 하여 모두 因果應報적인 결과를 맞았다. 이렇게 陸人龍은 明代의 많은 소설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流轉되던 因果應報의 관념을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을 勸戒하고 教化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因果應報의 관념은 몇몇 故事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型世言》 전반에 걸쳐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제11회의 陸仲숨은 謝芳卿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버지 친구와의 신의를 지켰으며, 나중에는 謝芳卿을 속량시켜 고향으로 돌려보낸 음덕으로 연속으로 시험에 합격하였다. 또한 제19회의 林森甫는 고리대금업자의 돈을 갚지 못해 자살하려는 支佩德의 처에게 선뜻 돈을 건네주어 그들을 도와준 음덕으로 明堂자리를 얻었으며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작자는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악한 행동을 하면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그만두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각성시키고 있다.

### 3. 異聞類

《型世言》 40회 중 나머지 몇回は 기이한 民間고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오락적인 면만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에서 流轉되는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 외에도 明末 宦官들의 전횡과, 조정의 부패를 풍자하기 위한 것도 있다. 특히 제37회 <西安府夫別妻 郟陽縣男化女>에서는 장사를 떠난 李良雨가 매독에 걸렸다가 나중에 여자로 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도 아니면서 여자처럼 화장

을 하고 아침만 일삼는 환관들의 전횡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 朝代에는 이러한 환관 王振、汪直、劉瑾、與憑保이 있는데, 남자도 여자도 아니면서 그곳에서 정사를 혼란시키고 있다. 이런 소인들이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다리를 꺾으며, 화장을 하고는 임금에게 가서 알랑거리고 있으므로, 옛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온 조정이 모두 여자들이다.

我朝自這干閹奴王振、汪直、劉瑾、與憑保，不雄不雌的，在那邊亂政，因有這小人磕頭掇腳、搽脂畫粉去奉承着他，昔人道的舉朝皆妾婦也.(제37회 p512)

요괴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조짐이 있으니 지금 간사한 무리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사내이면서 여자처럼 요사스럽게 꾸미고, 사내이면서 여자처럼 교태를 부리고 아침한다. 사내이면서 여자로서 그 마음이 선비 축에 끼어 벼슬 길에 나아간다. 간사한 암컷이 정치에 끼어 드니 못 수컷들이 그에게 빌붙는다. 여자 요괴가 천하를 뒤엎는 것이 어찌 李良雨한 사람 뿐이라? 李良雨는 부끄러움을 알되 朝野는 부끄러움을 모르니 도리어 良雨만 못하다.

妖不遽興，必有其證。今紅紫載道，丈夫而女子，其飾妖冶自好，丈夫而女子，其容至諧媚承順。則丈夫而女子，其心浸而士林，浸而仕路，浸而一雌奸乘政，群雄伏附之，陰妖遍天下矣，直一李良雨哉? 奈良雨知羞，而朝野不知羞，反又良雨不若.(제37회 回末評 p523~524)

그리고 陸人龍은 이처럼 明末의 무능하고 부패한 조정을 목도하고는 제34회 <奇顛清俗累 仙術動朝廷>에서 개국황제인 太祖는 하늘이 정해준 황제라는 점을 극력 예찬하여 明末 무능한 王權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다.<sup>69)</sup> 이 故事에는 朱元璋이 天子라는 것을 미

69) 劉美源, 《型世言研究》, 誠信女子大學敎 대학원 석사논문, 1996.5, p84참고

리 알았고, 25년 후에는 天子의 병을 치료해준 周顛 신선이 등장한다.<sup>70)</sup> 그는 朱元璋이 明을 개국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태평성대를 알리노라(告太平)”고 외치며 다녔으며, 太祖에게 陳友諒과 張士誠을 칠 것을 건의하고 出兵할때는 승리를 흉내내었다. 太祖는 그의 암시대로 천하를 평정하고 天子가 되었다. 25년 후 周顛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한 太祖를 그를 예우하려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이후였다.

이 외에 제38회 <妖狐巧合良緣 蔣郎終偕伉儷>, 제39회 <蟬珠巧乞護身符 妖蛟竟死誅邪檄>, 제40회 <陳御史錯認仙姑 張真人立辯猴詐>는 그저 단순히 기이한 故事를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妖狐, 蟬珠, 蛟龍, 妖猴는 둔갑술을 부리고, 비바람을 일으키는 등 초인간적인 능력을 소유하긴 했지만 인간을 능가할 수는 없는 요물일 뿐이었다.<sup>71)</sup>

제38회의 妖狐는 蔣日休가 文姬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文姬로 둔갑하여 蔣日休를 찾아와 매일 밤 함께 보냈다. 그녀가 妖怪라는 것을 눈치챈 옆방 친구들의 권유로 여자를 따라가서 文姬로 둔갑한 妖狐라는 것을 알았고 살려준다는 보답으로 신비로운 풀 세 다발을 받아 그 도움으로 文姬를 아내로 맞게 되었다. 작자는 妖狐가 아무리 사람으로 둔갑하여 사람을 미혹했다하더라도 妖狐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제39회에서도 볼 수 있다. 蟬珠는 그 빛이 너무 밝고 예뻐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蛟龍들도 탐을 내어 이를 차지하기 위해

70) 周顛은 역사상의 실제인물로 明 태조 朱元璋이 직접 <周顛仙人傳>을 지었으며, 이는 이후에 《明史》卷299 <方技傳>에 수록되었다.(權寧愛, 앞의 논문, p133~136참고)

71) 權寧愛, <明末 세 作家의 同一題材에 대한 形象化 樣相-陸人龍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제3집, 1994. 3, p150~152참고)

거센 바람과 폭우를 일으켜 근처 사람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마침 수리사업을 감독하기 위해 이 지역에 온 夏尙書의 꿈에 螿珠가 나타나 蛟龍들이 괴롭힌다며 護身符를 써줄 것을 부탁했다. 그가 蛟龍이 싫어하는 철판에 護身符를 만들어 물 속에 넣으니 이를 안 蛟龍은 자신에게도 시를 써주어 진주를 차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夏尙書는 백성들이 화를 입을 것을 걱정하여 草檄을 태우고 돼지와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는데, 이날 밤 갑자기 천둥소리가 나고 비바람이 치며, 벼락이 치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다음날 보니 蛟龍이 벼락에 맞아 죽어있었다. 螿珠는 夏尙書의 도움을 빌어 蛟龍을 피하려 했으며, 蛟龍 또한 螿珠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夏尙書를 찾아왔지만 결국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蛟龍은 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가 쓴 격문으로 인해 벼락을 맞고 죽은 것이다. 이 역시 아무리 비와 바람을 거느릴 수 있는 蛟龍이었지만 인간에게는 그저 凡物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故事이다.

제40회의 妖猴도 仙果를 증명하기 위해 미녀로 둔갑하고 인간을 미혹했지만 결국 劉伯濫에 의해 본색이 드러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사라졌다. 그러나 妖怪들을 물리치는 張真人에게서 인장을 받아 天門을 마음대로 드나들기 위해 점을 봐주는 老婆로 둔갑하여 陳騶山을 이용한다. 張真人은 陳騶山을 보고 妖氣가 농후하다고 느끼고 妖猴를 찾아가 인간세상을 혼란케 하고 천기를 누설했으며 인장을 구하려 했으니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호통치자 바로 벼락이 치더니 妖猴가 머리가 잘려 죽었다. 妖狐는 張真人의 인장을 받아야만 天門을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陳騶山을 이용했어도 결국 妖怪임을 알아낸 張真人을 능가할 수는 없었다.

작자는 이 몇 편의 異聞類 故事에서 인간을 미혹시키고,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妖物들은 결국 인간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이들 요괴를 물리친 夏尙書와 張眞人 등은 공리적인 목적 때문에 요괴들을 물리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즉 夏尙書는 바람을 일으켜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蛟龍을, 張眞人은 인간세상을 혼란케 하는 妖猴를 물리쳤다. 이들의 일련의 행적은 작자의 창작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작자 陸人龍은 요괴가 등장하는 신기한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들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고 있다. 즉 이러한 요괴들은 인간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많은 피해를 입히지만 사람들이 이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 인간을 능가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자는 제38회의 入話에서 獸妖·禽妖·水族之妖·花月之妖·器用之妖등을 설명하며 “그 사건들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客座의 신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세 번 반성하도록 한다(其事不一, 也都可做個客座新譚, 動世人三省)”이라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型世言》은 그 書名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모범적인 틀을 세워 세상 사람들을 勸戒하고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총 40회중에서 전반부는 忠臣, 孝子, 節婦, 烈女, 俠士 등 忠孝節義의 유교사상을 잘 지킨 긍정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세상 사람들에게 善한 행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후반부 15회는 도적, 건달, 악당, 사기꾼, 부패한 승려 등 부정적인 인물들이 善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르고 그에 상응하는 懲罰과 應報를 받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善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勸戒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또한 나머지 5회는 세상에 떠도는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당시 부패하고 무능한 조정을 비판하고 있으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요물이라 할 지라도 인간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型世言》은 봉건시대의 정통 유가사상을 선양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자가 직접 개입하여 직접적인 勸戒나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明代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어 이를 통해 당시 부패한 정치, 탐관오리의 부패, 상업의 성행, 농민들의 수난, 사기꾼과 악당들의 발호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 IV. 《型世言》의 특색

제3장에서는 《型世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사상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型世言》이 갖는 擬話本小說로서 갖는 특색 및 그 나름대로의 특색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형식적인 측면

《型世言》은 擬話本短篇小說集이기 때문에 각 회에서는 일반적인 擬話本 소설이 갖는 형식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즉 각 회는 ‘入話-正話-篇尾’라는 삼단계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거나 정경을 묘사할 때에는 詩詞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 회에 回前 서문과 回末評이 있다는 것은 다른 擬話本小說集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1) 題目

“三言”의 편찬자 馮夢龍은 이전의 소설 제목과는 달리 제목에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고 있다. ‘세상을 일깨우는 밝은 이야기(喻世明言)’, ‘세상을 경계시키면서도 일반 대중에게 통할 수 있는 이야기(警世通言)’, ‘세상을 깨우치는 영원한 이야기(醒世恒言)’에서 엿볼 수 있듯이 “三言”의 경우 전체적으로 교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세상에 통할 수 있는(通言)” 통속성 역시 제목에서 언급함으로써 馮夢龍의 사상 및 집필 목적을 집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兩拍”의 경우는 “책상을 칠 정도로 경이로운 이야기(拍案驚奇)”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三言”이 교화와 통속을 아우르면서도 교화에 비중을 두

어 제목을 지은 것과 비교하여 다소 통속적이고 오락적인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陸人龍은 “세상의 틀을 세우는 이야기(型世言)”라는 것을 제목으로 사용하여 “三言”의 강렬한 교육적 의식을 계승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교화하고자 하는 작자의 집필목적은 피력하고 있다. 이것은 “三言” “兩拍”처럼 總序文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각 회에서 보이는 작자의 직접적인 설명이나 回前 小引과 回末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擬話本小說의 개개 작품의 回目は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시에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型世言》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三言” “兩拍”을 계승했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三言”의 경우 전체의 내용을 7-8자의 詩的 單句로 압축하여 제목으로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끄고 동시에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sup>72)</sup> 그리고 홀수와 짝수의 작품이 한 쌍이 되도록 배열하고 있는데, 즉 권1과 권2, 권3과 권4의 제목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警世通言》에서 권17과 권18의 제목은 각각 <鈍秀才一朝交泰(鈍秀才가 하루아침에 태평한 신세로 바뀌다)>와 <老門生三世報恩(老門生이 삼세에 걸쳐 은혜를 갚다)>인데, ‘鈍秀才’와 ‘老門生’, ‘一朝’와 ‘三世’, ‘交泰’와 ‘報恩’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兩拍”과 《型世言》은 “三言”과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을 개괄하는 제목을 사용하면서도 “三言”이 回目的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두 작품을 대구로 연결한 것과는 달리 한 작품 안에서 대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型世言》 제16회 <內江縣三節婦守貞

---

72) 金敏鎬, <馮夢龍과 凌濛初, 그 같음과 다름>, 한국중국소설학회 창립 10주년 국제학술발표회, 1999. 12, p121

成都郡兩孤兒連捷(內江縣의 세 절부는 수절을 하고, 成都郡의 두 고아는 시험에 연속으로 합격하다)>에서 ‘內江縣’과 ‘成都郡’, ‘三節婦’와 ‘兩孤兒’, ‘守貞’과 ‘連捷’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凌濛初는 각 回目的 작명원칙을 <拍案驚奇凡例計五則>의 첫째 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하나, 매 회에는 제목이 있는데, 이전 소설들은 제목을 지음에 있어 모두 흘롱하였다. 이에 원나라 사람들은 이를 雜劇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지금 《太和正音譜》에 실려있는 잡극 제목 중 반 정도가 소설의 제목을 사용한 것이다. 근래 들어 비슷한 내용도 아닌 두 작품을 가지고 대구를 만들려 하는데 이는 옛 제목을 고쳐 다듬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또한 비싼 글을 잘못 건드려 쓸모 없는 철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매 회에 두 구를 사용하여 서로 대구가 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水滸傳》《西遊記》와 같은 옛 體例를 모방한 것이다.

一, 每回有題, 舊小說造句皆妙. 故元人即以之爲劇, 今《太和正音譜》所載劇名, 半猶小說句也. 近來必欲取兩回之不侔者, 比而偶之, 遂不免竄削舊題, 亦是點金成鐵. 今每回用二句相對偶, 仿《水滸》《西遊》舊例.

중국의 문인들은 예로부터 시를 짓거나 제목을 채택함에 있어서도 대구를 즐겨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글을 지를 때에도 대구의 문장을 선호하였다. 이런 전통을 이어 “三言”이 내용상 전혀 연관이 없는 두 작품을 대구로 묶는 대신에 “兩拍”과 《型世言》은 한 작품 안에서 대구를 이루어지도록 제목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 2) 詩詞의 삼입

익히 알고 있듯이 話本小說은 산문과 운문이 결합된 형식으로 되

어 있다. 산문은 대체로 사건을 묘사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사용되며 운문은 등장인물의 내면 심정이나 인물의 외모 혹은 정경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明代의 擬話本小説은 話本小説의 형식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운문과 산문을 결합하여 서사를 진행시키고는 있지만 話本小説에 비해 운문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擬話本小説은 閱讀을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나중에 창작된 擬話本小説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다음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sup>73)</sup>

작품 挿入 詩詞首	喻世明言 (1620~21)	警世通言 (1624)	醒世恒言 (1627)	拍案驚奇 (1628)	二刻 拍案驚奇 (1632)	型世言 (1632년경)
1~4首	3 (7.5%)	3 (7.5%)	6 (15%)	19 (47.5%)	5 (12.8%)	5 (12.5%)
5~8首	17 (42.5%)	20 (50%)	14 (35%)	16 (40%)	28 (71.8%)	18 (45%)
9~12首	11 (27.5%)	10 (25%)	14 (35%)	5 (12.5%)	3 (7.7%)	12 (30%)
13首 이상	9 (22.5%)	7 (17.5%)	6 (15%)		3 (7.7%)	5 (12.5%)
合計	40 (100%)	40 (100%)	40 (100%)	40 (100%)	39 (100%)	40 (100%)

“三言”에 삽입된 詩詞의 수량을 보면 한 작품에 13數 이상의 시사를 삽입하고 있는 작품이 전체에서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兩拍”과 《型世言》의 경우는 그 비율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三言”의 경우 총 120편의 작품 중에서 12수

73) “三言”, “兩拍”에 삽입된 詩詞의 數는 陳大康의 <擬話本二論>, 《文學遺產》1991. 2기, p111~112를 참고하였다.

이하의 詩詞를 삽입하고 있는 경우는 92편으로 76.7%이지만, “兩拍”은 총 79편중에 76편, 96.2%에 달한다. 《型世言》의 경우도 87.5에 달하는 35편의 작품이 12수 이하의 詩詞를 삽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二句로 된 韻語의 수에서도 드러난다. 二句韻語 역시 상황이나 인물 등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며 보통 7言이나 5言으로 되어 있고 간혹 6言이나 4言으로 된 경우도 있다.

작품 二句 韻語數	喻世明言 (1620~21)	警世通言 (1624)	醒世恒言 (1627)	拍案驚奇 (1628)	二刻 拍案驚奇 (1632)	型世言 (1632년경)
없음	7 (17.5%)	5 (12.5%)	3 (7.5%)	18 (45%)	12 (30.8%)	21 (52.5%)
1~3	17 (42.5%)	13 (32.5%)	10 (25%)	20 (50%)	27 (69.2%)	18 (45%)
4~6	10 (25%)	7 (17.5%)	15 (37.5%)	2 (5%)		1 (2.5%)
7~9	4 (10%)	8 (20%)	6 (15%)			
10이상	2 (5%)	7 (17.5%)	6 (15%)			
합계	40 (100%)	40 (100%)	40 (100%)	40 (100%)	39 (100%)	40 (100%)

위의 표74)에서 알 수 있듯이 “三言”인 경우 二句韻語를 7개 이상 삽입한 작품수가 많은 편이지만, “兩拍”과 《型世言》인 경우 7개 이상 삽입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擬話本小說이 話本小說의 형식을 모방하긴 했지만 삽입된

74) “三言”, “兩拍”에 삽입된 二句韻語의 數는 陳大康의 <擬話本二論>, 《文學遺產》1991. 2기, p111~112를 참고하였다.

詩詞나 二句韻語의 수가 줄어든 것은 擬話本小説은 說話人의 底本이 아니라 열독을 위해 창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擬話本小説의 작자는 점점 작품의 실제적인 내용과 구성을 중시하게 되어 더 이상 話本型式의 모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型世言》의 작자 陸人龍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三言”에 비해 挿入詩詞의 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二句韻語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삽입시사가 12수 이하인 경우는 모두 35회이며 87.5%에 해당한다. 반면 挿入詩詞의 수가 13수 이상인 회는 제7·11·29·39·40회로 5회, 12.5%에 불과하다. 그러나 挿入詩詞는 여전히 등장 인물이 직접 자신의 심정을 詩詞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인물을 묘사하거나 혹은 정경이나 상황을 묘사할 때에도 사용하고 있다.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이마를 덮은 짧은 검은 머리,  
 긴 손과 발 옷웃이 감싸고 있네.  
 그 미모는 아리따운 여인의 요염함과 견줄만하고,  
 그 용모는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를 빼앗는구나.  
 자그마한 부채로 수줍은 얼굴 가리고  
 얇은 옷은 은은한 향기 끌며 가네.  
 禮敎를 좇자니 정신이 곧 끊어질 듯하고  
 다시 男色을 생각나게 하네.  
 額覆靑絲短, 衫籠玉筍長.  
 色疑嬌女媚, 容奪美人芳.  
 小扇藏羞面, 輕衫曳暗香.  
 從敎魂欲斷, 無復憶龍陽.(제23회 p313)

이는 陳有容의 모습을 형용한 것으로 그는 남자였지만 여자보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 朱愷로 하여금 男色을 느끼게 하였

다.

다음은 풍경을 묘사한 것인데, 秦鳳義가 임지에 당도한 후 둘러본 관가 저택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이로써 독자들은 작자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저택이 무척 넓었으며, 사람의 손길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넓은 기둥은 교묘하게 검은 판에 박혀 있고,  
기울어진 서까래는 붉은 처마를 겨우 장식하고 있네.  
꽤어져 있는 땅은 여기저기 뚫려져 있고,  
오래되어 흔들거리는 문은 앞뒤로 보수되어 있네.  
천당(川堂)의 천장은 크고,  
종이로 바른 창은 문짝마다 格子가 3개만 남아있고,  
방과 사당은 같고,  
썩은 대울타리는 줄마다 기와 몇 장만 남아있네.  
오래된 책상은 옷칠이 반쯤 남아있고,  
넓은 침대는 붉은 색이 다 바래졌네.  
벽은 기울어 해를 막기도 어렵고,  
문은 없어 바람을 막지도 못하네.  
爛柱巧鑲黑板, 頽椽強飾紅檐.  
破地平東缺西穿, 舊輓門前後補.  
川堂巴斗大, 紙糊窓每扇剩格子三條.  
私室廟堂般, 朽竹笆每行攔瓦兒几片.  
古桌半存漆, 舊床無復紅.  
壁欹難碍日, 門缺不關風.(제20회 p278)

그리고 다음은 詩詞로써 등장인물의 심리를 표현한 경우인데, 이는 建文君이 승려행세를 하며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은 시이다.

楞嚴經 읽기를 마치고 경관을 천천히 치고  
 웃으며 黃屋에서 높은 사다리로 보내네  
 남쪽으로 오니 瘴氣서린 고개가 여러 층으로 휘감고 있고  
 북쪽을 바라보니 天門이 멀고도 멀구나  
 걸음이 느린 말은 하품하며 飛鳳 수레를 잊어버리고  
 가사를 입고 袞龍布를 갈아입네  
 百官들은 이날 어디에 있을까?  
 오직 까마귀들만 아침저녁으로 朝會하네  
 闕罷楞嚴磬懶敲, 笑着黃屋寄雲梯.  
 南來瘴嶺千層迴, 北望天門萬里遙.  
 款段欠忘飛鳳輦, 袈裟新換袞龍袍.  
 百官此日知何處? 惟有群鳥早晚朝.(제8회 p122~123)

이 시를 통하여 독자들은 建文君이 건륭포 대신 가사를 입고 돌아다니면서도 백관들의 조회를 받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正話에 쓰인 插入詩詞는 인물·풍경묘사, 상황설명, 등장인물의 심리상태 묘사이외에도 작자의 논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는 대부분의 開場詩와 散場詩가 해당되며, 일부 入話에 쓰인 詩詞들도 이에 해당된다.

골짜기 구름은 자욱하여 巫山이 어둡고,  
 岷山의 수원은 강물 깊은 데서 물결치네.  
 땅이 영묘하니 응당 기이한 호걸이 나오고,  
 강한 절개는 바로 고금을 능가하려 하네.  
 글이 있어도 薛濤의 시를 쓰지 않고,  
 거문고 있어도 어찌 卓文君의 음을 연주하겠는가.  
 돌 거울에 비친 초승달은 밤의 어두움을 비추고,  
 가을 신 白帝가 보낸 산들바람은 가을 다듬이소리를 전하네.  
 처연하게도 어찌 괴로운 고통을 참는 것을 애석히 여기고,

거문고 타는 소리는 더욱 단단해져 돌 마음과 같다.  
하얗게 변한 소나무와 대나무는 다행히 부끄러움이 없고,  
푸른 구름 밑 난초와 계수나무는 얼마나 적막하고 고요한가.

나는 지금 마구 써서 붉은 관에 넣네,  
향내나는 소리가 영원히 규중의 경계가 되기를.

峽雲黯黯巫山陰, 岷源汨汨江水深.

地靈應看產奇杰, 勁操直欲凌古今.

有箋不寫薛濤詠, 有琴豈鼓文君音.

石鏡纖月照夜杼, 白帝輕風傳秋砧.

淒然那惜茹蕖苦? 鏗爾益堅如石心.

白首松筠幸無愧, 青雲蘭桂何蕭森.

我今謾寫入彤管, 芳聲永作閨中箴(제16회 開場詩)

이 시는 內江縣 세 節婦의 절개를 칭송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며, 시의 마지막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閨中의 여인들이 이들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型世言》에 삽입된 詩詞는 초기 擬話本小說에 삽입된 詩詞보다 그 수가 감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인물이나 풍경을 묘사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고, 등장인물의 심리내면을 표현하기도 하고 작자의 논지를 설명하고 있다.

### 3) 回前 서문과 回末評

《型世言》의 매 회의 앞에는 翠娛閣주인의 敍, 序, 小序, 小引, 題詞 등이 있고, 매 회의 뒤에는 “雨侯” “木强人” “草莽臣” 등의 이름으로 쓰인 回末評이 있다. 단편소설집으로서 매 편마다 서문과 回末評이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로서 이는 《型世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型世言》의 작자 陸人龍은 집

안의 가장이며 崢霄館 주인이었던 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回前 서문과 回末評은 首卷이 소실되어 총序文의 내용을 알 길이 없어 작자의 창작 의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자의 소설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型世言》에는 모든 回의 제목 다음에 작자와 평자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翠娛閣主人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 낙관이 찍힌 회전 서문과 回의 끝에는 回末評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型世言》의 작자 陸人龍은 하나의 回가 완성되면 우선 그 형인 陸雲龍에게 보였으며, 陸雲龍은 그때그때 각 회의 回前 서문과 回末評을 썼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評者의 이름이 일정치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sup>75)</sup> 만약 《型世言》 총 40회의 고사를 陸雲龍이 한꺼번에 보았다면 陸雲龍은 “鹽官木强人(제1회)”, “海昌草莽臣(제2회)”, “三吳至性人(제3회)”, “括蒼女史氏(제4회)”, “燕市酒徒(제5회)” 등의 각 회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76)</sup> 그리고 翠娛閣主人의 回前 서문다음에 찍힌 낙관 역시 “雨侯”, “雨侯氏”, “陸雲龍”, “雲龍”, “翠娛閣” 등 이외에도 “獨有齋(제10회)” “方回後身(제15회)” 등의 낙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型世言》의 각 回는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져서 형인 陸雲龍으로 하여금 먼저 읽

75)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雨侯”란 이름으로 回末評을 하고 있으며, 앞부분에 서명된 評者의 이름으로 회말평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1회, 제2회, 제3회, 제9회, 제12회, 제13회, 제26회 등 총 7회뿐이며, 이 경우 “雨侯”의 이름으로 된 回末評이 함께 있다.

76) 이런 점으로 보면 評者가 陸人龍 혼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回末評인 경우 거의 대부분이 “雨侯”란 이름으로 평하고 있으며 回前 서문의 끝 “翠娛閣主人” 서명 다음에 찍힌 낙관으로도 評者가 陸雲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陳慶浩는 이들이 대부분 陸雲龍의 化身이라 주장하고 있다.(陳慶浩, <《型世言》-4백년간 문혔던 短篇小說集>, 《중국소설연구회보》 제13호, 1993. 3, p56~58참고)

어보게 하였으며, 陸雲龍은 평소 자신이 출판한 책의 卷頭에 직접 서문을 쓰는 습관대로 77) 回前 서문과 回末評을 썼을 것이다. 《型世言》은 일반 대중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출판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통속소설이었으므로 당연히 상업성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書商인 陸雲龍의 눈으로 상업성 여부를 판단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陸人龍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한 출판사의 책임자로서 작자 陸人龍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回前 서문과 回末評에서도 작자와 같은 견해를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즉 陸人龍의 《型世言》 창작의도는 세상 사람들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以爲世型”, “樹型今世” 등과 선하지 못한 사람들의 좋지 못한 결말을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을 勸戒하겠다는 것으로 짐작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은 여러 回前 서문과 回末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선 제1회의 回前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敍：食人之祿，忠人之事。忠何必殺身，亦何必不殺身！忠何必覆家，亦何必不覆家！唯以凜然不受磨滅之心，可以質天地，可以動鬼神，可以靖君父，可以對家庭！嗚呼已矣！死猶生矣！卽今日之筆舌，尤足見當日之須眉。彼景隆之身亦死，家亦□，不天壤哉！留取丹心照汗青，鐵尙書丹心從今當更耿耿耳！

敍：남의 봉록을 먹고, 남의 일에 충성한다. 충성을 함에 있어서 구태여 殺身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구태여 살신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충성을 함에 있어서 구태여 집안을 망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집안을 망치지 않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늙은 하계 (충성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天地를 질박하게 할

---

77) 陳慶浩, <《型世言》-4백년간 묻혔던 短篇小說集>, 《중국소설연구회보》 제 13호, 1999. 3, p52참고

수 있으며, 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임금과 어버이를 편안케 할 수도 있으며,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도 있다. 아아! 죽음이 삶과 같도다! 즉 오늘의 글과 말은 특히 당시의 남자를 볼 수 있게 한다. 저 景隆의 몸은 역시 죽었으며, 집안도 역시 전복당한 것이 멀지 않도다! 丹心을 취하여 靑史에 비추니, 鐵尙書의 丹心은 지금부터 더욱 빛이 나리라!

이 回前 서문에서는 鐵尙書의 “忠”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忠”을 가송하여 “忠”을 선양하겠다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回末評에서는 高賢寧에 관한 기록이 역사에 보이고 鐵尙書의 두 딸이 지은 시가 전해지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기록하여 “세상의 틀로 삼고자 하는(以爲型世)” 창작의도를 밝히고 있다.

제3회의 回前 서문에서도 “眞可樹型今世”라 창작의도를 밝히고 있으며 回末評에서는 掌珠가 시어머니를 팔았다가 결국은 자신이 화를 당하게 된 일을 설명하여 시어머니를 판 掌珠의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로서 이 일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警戒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경계로 삼고자 하는 회에서는 回前 서문과 回末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 제25회의 경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재산과 부인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재산과 사람을 둘 다 잃게 된 고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勸戒하고 있는데, 그 回末評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錢財有命, 君子落得爲君子, 小人落得爲小人, 不必衝之得失之賈.  
然借此得失, 可以醒庸人之心.

재물은 다 그 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君子는 떨어져도 君子

이고, 小人은 떨어져도 소인이니, 그 득실의 값을 쟈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득실을 빌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각성시킬 수 있다.

또한 제28회에서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중의 힘을 빌어 공명을 구하고자 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張秀才와 재산을 탐하다가 결국 죽게 된 道譽 화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回前 서문과 回末評에서도 이들을 경계로 삼고 있다. 즉 回前 서문에서는 “不倚人而倚天”하고 “不信己而信鬼”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은 張秀才를 비난하고 있으며, 回末評에서도 “秀才不會自取功名, 假錢神、借權要, 甚而乞靈和尚, 羞之極矣!, 愚受局而貪得死, 都可作今笑柄”이라 하여 《型世言》의 창작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回前 서문과 回末評을 통하여 작자와 평자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작자 陸人龍은 陸雲龍의 동생인데 이는 제16회 題詞의 “卓哉三夫人, 知不辱吾弟之筆”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들의 가족에 관한 것을 제16회 回末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의 형제는 모두 5이며,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두 어머니가 모진 고생을 하며 형제들을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자 陸雲龍이 각 회 回末에 단 評語는 아마도 산문에서 전체의 내용을 總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曰78)”, “亂曰79)”, “贊曰80)”의 형식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型世言》에 보이는 回末評 역시 그 회 回의 전체내용을 총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산문에서 사용된 “亂曰” “贊曰” 등은 작자 자신이 내린 결론이어서 《型世言》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처럼

---

78) 司馬遷의 《史記》에는 장의 끝에 “太史公曰”로 시작하는 總結부분이 있다.  
79) 《楚辭》에 보임  
80) 劉勰의 《文心雕龍》인 경우 각 장의 말미에 “贊曰”이라 하여 그 장의 내용을 총결하고 있다.

보일 수 있다. 그러나 《型世言》의 작자와 평자는 형제라는 특수한 사이이며 이들의 사상은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평자가 내린 결론이기는 하지만 이는 또한 작자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형식의 차용은 작품의 주제나 창작의도에 서 엿볼 수 있는 작자와 평자의 보수적인 사상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型世言》 총 40회에 있는 回前 서문과 回末評은 모두 작자 陸人龍의 형인 陸雲龍이 쓴 것으로 유교사상을 선양하고 세상의 모범적인 틀을 제시하겠다는 작자의 창작의도와 작자와 평자에 관한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陸雲龍의 回前 서문과 回末評은 首卷이 소실된 《型世言》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2. 내용적인 측면



### 1) 明代사회의 반영

《型世言》의 경우 대부분 “我朝”에 발생한 故事임을 밝히고 明代의 사회생활에서 취한 故事를 다루고 있어서 이들은 모두 明代라는 특정 사회에 처해 明代의 사회 현실 특히 明末의 혼란스러운 사회의 모습을 진실되게 묘사하고 있다. 陸人龍은 직접 환관들의 전횡과 탐관오리들의 暴政 및 과거제도의 비리 등을 경험하고 고통받는 농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明末 사회를 좀더 진실되게 묘사할 수 있었다.

특히 《型世言》에는 明末의 혼란한 정치상황이 반영되어 宦官들의 횡포, 국정의 문란, 금전만능의 세태 등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型世言》 제14회에서는 당

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政事는 전혀 모르면서 돈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貪官이다. 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 대대적인 살육을 하는 사람들은 酷官(잔혹한 관리)이다. 또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蠢官(어리석은 관리)이다.

如今在這邊做官的，不曉政事，一味要錢的，這是貪官；不惟要錢，又大殺戮，這是酷官；還又嫉賢妒能，妄作妄爲，這是蠢官。(제14회 p197)

이처럼 조정과 관리들이 문란해지자 과거를 통한 관료선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賂物에 의한 과거합격이나 賣官賣職의 현상도 생기게 되었다.

《型世言》 제27회의 錢公布는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봐 주는 사람이며, 제16회에서는 과거를 볼 때 부정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고, 제32회의 任天廷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시험관에게 뇌물을 바쳤으며, 제20회에서는 石不磷에 대한 설명을 통해 功名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八股로 글을 지었지만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하자 “대장부가 어찌 돈 냄새 풍기는 소인배들을 쫓아 오늘은 문객으로 찾아가고 내일은 추천서를 바라면서 헛된 공명을 얻겠는가?”라고 하면서 책을 내팽개치고 古文과 詩歌를 지으며, 거문고를 연주하고 검도를 연마하며 서예와 그림을 그렸지 隱人이나 文人을 가장하며 그저 환심을 사려고 비굴하게 알랑거리는 아첨꾼들이 추천서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집사에게 마치 친형제처럼 아부하는 그런 짓은 흉내내지 않았다.

少年也弄八股頭做文字，累舉不第，道：“大丈夫怎么隨這幾個銅臭小兒，今日拜門生，明日討薦書，博這虛名！”就撇了書，做些古文詩歌，彈琴擊劍，寫字畫畫，雖不肯學這些假山人，假墨客，一味奴顏婢膝的捧粗腿，呵大卵胞，求薦書東走西奔，鑽管家如兄若弟。(제20회 p271~272)

이렇게 뇌물이나 매관매직으로 관리가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탐관오리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官府의 암흑은 백성들을 꺾박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조정의 재정낭비로 인한 국가의 궁핍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지게 되었는데, 이들 작품에서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 것들이 많다.

《型世言》 제33회에서는 농민들의 과중한 조세부담과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폭로하고 있다.

蘇淞의 세량은 아주 무거우며 농업세(소작세) 또한 마치 호랑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과 같았다. 은으로 계산하게 되면 두 세 배 보태어 공제되고, 곡식으로 계산하면 너다섯 배 보태져서 공제된다. 또한 제멋대로 강제노동을 보내어 백성들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고 교묘히 도움을 주고는 백성들의 금품을 추렴해간다. 본분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을 가련하다고 여겨 점점 더 백성들을 구제하겠다고 하지는 않는다. 임대료를 돌려 받을 때는 빌려쓰는 사람이 궁하고 어렵다고 말하며 조금 덜 받았다가 나중에 더 내라고 독촉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부탁하여 조금씩 갖고 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백성들에게 덜 받는다고 한다.

蘇淞稅量極重，糧里又似老虎一般嚼民，銀子作準扣到加二三，糧米作準扣到加四五，又亂派出雜泛差徭，干折他銀子；巧立出加貼幫助，科斂他銅錢。不說他本分憐，越要濟他。還租時，做租戶的裝窮說苦，先少了几斗，待他逼添。這等求爺告娘，一升升拿出來，到底

탐관오리의 수탈은 풍년이나 흉년이나 가지지 않고 이어졌으며, 세금 독촉을 빌미로 요구하는 뇌물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백성들은 이를 피해 유민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型世言》 제9회에서는 당시 농민들이 유민이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성들에게 농사지을 땅이 있고, 살만한 집이 있어, 그러저럭 생활할 수 있다면 무슨 이유로 도망을 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겠는가? 그러나 몇 가지 폐해가 있다는 것은 모른다. 첫째는 좋지 않은 시기를 만났다는 것이다. 비가 와야할 때 비가 오지 않고, 맑아야 할 때 맑지 않거나 혹은 바람과 우박이 농작물을 망치거나 해충이 모와 보리를 갈아먹는 것이다. 올해에 땅이 좋지 않으면 내년에는 또 수확이 없으니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피해 풍요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좋지 않은 官府를 만난 것이다. 堂上에 앉아 곡식과 지전으로 벌금을 부과할 줄만 알뿐, 화폐 제조 때 생기는 은의 손실이나 환전이나 물물교환, 水害나 가뭄이 들었을 때 현지를 답사하고 보고할 줄은 몰랐다. 현지를 조사하여 보고할 때에는 단지 書吏들이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하는 것만을 믿었다. 상부에 구휼을 건의할 때에도 구휼관리에게만 맡겨놓으니 어떻게 평민까지 구휼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탐욕을 피해 청렴한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불합리한 里遞이다. 십년마다 장부를 만들 때, 돈을 써서 탈세하고 재산을 타인 소유로 위장하였다. 본래 부자들은 재산이 많으면 부역도 무겁다는 것을 알고서는 戶를 두서너 戶로 나누어 재산을 鄉官 舉監이름아래 놓았다. 小戶들은 도리어 재산을 옮길 데가 없으니 그들의 부역은 오히려 무거웠다. 小民들은 官府에서 알까 두려워 결국 완납을 하는데, 銀은 삼배를 더 내고 쌀은 사배를 더 주어 갚아야 하고 또 수당을 더 주어 면제를 받으려 한다. 官에서 늦어도 그는 늦을 수 없고, 관은 용서가 되어도 그는 용서되지 않는다. 이와 같

이 小民들을 갈아먹으니 백성들도 存立할 수 없다.

百姓有田可耕，有屋可住，胡亂過得日子，爲何又有逃亡流徒的？却不知有几件弊病：第一是遇不好時年，該雨不雨，該晴不晴；或者風雹又壞了禾稼，蝗蟲吃了苗麥。今年田地不好，明年又沒收成，百姓不得不避荒就熟。第二是遇不好的官府，坐在堂上，只曉得罰谷罰紙，火耗兌頭，縣中水旱也不曉得踏勘申報。就勘報時，也只是書吏胡亂應個故事。到上司議賑濟，也只當賑濟官吏，何曾得到平人？百姓不得不避貧就廉。第三是不好的里遞，當十年造冊時，花分詭寄，本是富戶，怕產多役重，一戶分作兩三戶，把產業派向鄉官舉監名下。那小戶反沒處那移，他的徭役反重。小民怕見官府，畢竟要托他完納，銀加三，米加四，還要津貼使費，官遲他不遲，官饒他不饒。似此咀嚙小民，百姓也不能存立(제33회 p462~463).

당시의 농민들은 흉년, 부패한 관리의 탐욕, 부당하고 과중한 부역을 피해서 타지를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 작품에서는 이상과 같이 조세제도와 탐관오리들의 폭정에 시달리는 선량한 백성들의 생활상을 폭로하여 당시의 암울했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型世言》에서는 당시 흥성했던 상업에 대해 묘사하기도 하였고 상인을 대거 등장시키고 있다. 제3회의 周于倫은 소주집, 그의 장인은 南貨店을, 제6회의 朱寡婦는 여관을 운영했으며, 제23회의 朱愷는 장사를 배우러 가다가 변을 당했다. 제26회의 吳爾揮는 鹽商이었으며, 張穀의 집안도 대대로 장사를 했고 張二娘의 부친은 機坊을 운영하였다. 특히 제26에서는 杭州일대로 성행했던 鹽商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東首일대는, 錢塘江으로부터 바다로 바로 통한다. 모래사장에서 제염업자들은 각기 땅을 나누어 소금을 줄여 소금을 만들고는 鹽商에게 팔고 각지에 분점을 내었다. 조정은 杭州 菜市橋에

掣放行라고 하는 소금 전매소를 설치하여 鹽商들은 모두 杭州에 모여들었다.

東首一帶，自錢塘江直通大海。沙灘之上，竈戶各有分地，煎沙成鹽，賣與鹽商，分行各地。朝廷因在杭州菜市橋設立批驗鹽引所，稱掣放行，故此鹽商都聚在杭城。(제26회 p352)

이렇게 세 作者들은 明代라는 특정 사회에 처해 明末 관리들의 부패, 과거제도의 비리와 고통받는 농민들의 모습 및 당시 성행했던 상업과 상인에 대해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특히 《型世言》은 明대의 실제인물과 실제 사건들을 통해 明代 사회를 좀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鐵尙書, 王世名, 李時勉, 王振, 項忠 등은 모두 실존인물들이며, 대부분의 고사는 “我朝”란 단어를 사용하여 明代에 발생한 일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25회에서는 崇禎 元年(1628) 7월 浙江 연안에서 발생한 태풍과 해일의 피해를 입은 정경을 묘사하였으며, 효자 王世名과 효녀 陳妙珍의 이야기 등은 《明史》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81)</sup> 《型世言》은 이처럼 明代라는 특정시기의 생활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82)</sup>

## 2) 愛情故事

《型世言》의 총 40편중에서 애정을 歌頌하고 있는 작품은 한편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작자 陸人龍이 통속정보다는 당시 문란해진 性 문화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며 일반 대중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작품 창작에 임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간이

81) 陸人龍, 《型世言》, 中華書局, 1993. 8, 附錄2 참고

82) 朴在淵, <《型世言》 연구>, 《중국학논총》 제4집, 충청중국학회, 1995. 4, p110참고

보이는 남녀간의 사랑은 好色을 勸戒하는 목적에 치우쳐져서 있어서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이들을 淫女나 好色漢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몇 개의 고사에 보이는 私通하는 장면의 사실적인 묘사나 동성애 등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경우 역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며 愛情 자체를 歌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유연애를 추구했던 제11회의 芳卿은 부모님의 명이나 중매쟁이의 말에 따라 혼인을 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陸仲숨을 유혹하여 그와 혼인하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작자는 그녀의 적극적인 애정추구의 행동을 淫亂하다고 여겼으며, 가정교사를 따라 집을 떠난 그녀를 淫婦라 비난하였다. 반면 陸仲숨은 아버지 친구와의 의리를 지켜 芳卿의 적극적인 사랑을 거절한 陰德으로 과거에 연속 합격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작자는 순수한 청춘남녀의 사랑과 자유연애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은 부모의 명이나 중매쟁이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던 작가의 관점에서는 자유연애를 추구하고자 했던 芳卿은 淫亂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제5회의 鄧씨는 매일 만취해 돌아오는 남편에게서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언니의 충고대로 耿植을 情夫로 구하고 그와 거의 매일 사통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貞節觀을 갖고 있던 陸人龍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어김없이 鄧씨에게도 淫婦라는 비난이 가해졌다.

제6회의 朱寡婦 역시 淫婦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남편과 사별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작자는 朱과부의 이웃들의 입을 빌어 汪涵宇와의 사통을 淫亂하다고 비난했으며, 결국 이 사실을 안 아

들은 어머니의 일을 고민하다 끝내 죽고 말았다. 즉 작자는 남편이 있는 없든 간에 여자는 무조건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貞節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型世言》의 작가 陸人龍은 明末 시대에 문란해진 性문화를 바라보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봉건적인 유교 사상에 입각한 貞節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혼인은 “父母之命, 媒妁之言”에 따라서 부모가 정해진 사람과 해야 하며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평생 그 남편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난 謝芳卿은 淫婦라는 비난을 받게 했으며, 徐銘은 愛姐를 차지하기 위해 살인을 하고 속임수를 써야만 했으며, 결국 이런 사실이 밝혀져 徐銘은 好色漢, 愛姐는 淫婦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성적 매력이 없는 남편 董文을 버리고 耿植과 私通을 했던 鄧씨는 淫婦라는 비난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陸人龍은 당시 문란한 性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결혼관이나 정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등장시켜 淫婦나 好色漢이라는 비난을 함으로써 실제로 도덕적이지 못한 性을 즐기는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 3) 작자의 직접적인 개입

《型世言》은 明末의 소설이론 중에서도 소설이 백성들에 대한 교화작용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이론에 영향을 받고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곳곳에 작자가 이야기 도중에 직접 개입하여 설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예를 들면, 제4회에서는 陳妙珍이 죽을 때 사리가 나온 것을 두고 “모든 경전에서 孝義가 우선이다. 사람이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할 수 있다면 어찌 부처가 되지 않고

본보기가 되지 않겠는가?(千經萬典, 孝義爲先, 人能眞實孝親, 豈不成佛作祖?)”라고 하고 있으며, 제9회에서는 王世名이 孝行으로 관리가 되어 나라에 충성한 것을 말하며 “충신은 반드시 효자가 난 집안에서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求忠臣必于孝子之門, 有由然矣)”라 하였다. 제16회 入話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첩 보기를 자매와 같이 하고, 남의 자식보기를 자기 자식 보는 것처럼 하며, 죽을 때까지 굳게 지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찌 절개와 덕을 갖춘 것이 아니겠는가?

若是視妾如姊妹, 視他人子如己子, 能死守不變, 豈不是有節有德?(제16회 p221)

제25회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로써 나쁜 마음을 먹고 재물을 탐한 자는 사람도 잃고 재물도 잃으며, 좋은 마음을 먹고 사람을 구하면 사람도 얻고 재물도 얻는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은가! 禍福은 들어오는 문이 없고 오로지 사람들 스스로 불러온다.

這不可見狠心貪財的, 失人還失財; 用心救人的, 得人又得財. 禍福無門, 唯人自召.(제25회 p350)

이와 같이 작자가 작품 곳곳에 직접 개입하여 설교와 勸戒를 하고 있는 것은 작자가 목적인 세상을 교화하고 勸戒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자의 직접적인 개입은 작품의 예술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sup>83)</sup> 《型世言》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자연스럽게 독자들을 교화하고 勸戒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강하고 설득력 있는 敎化의

83) 齊裕焜, 《明代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7. 6, p393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자가 직접 개입하여 설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型世言》은 “三言”의 영향을 받아 소설의 교화적 목적을 중시하여 제목 역시 “세상의 틀을 세우는 이야기”로 정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유가사상을 선양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我朝”의 고사를 다루고 있어 明代라는 특정 사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문학적 가치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단편소설집들과는 달리 매 회에 回前 서문과 回末評이 있어 작자와 평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소설의 교화적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여타의 擬話本短篇小說集에서 일종의 통속적 목적으로 다루고 있는 진정한 愛情고사는 전혀 없으며, 작자가 직접 개입하여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 작품의 예술성을 다소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작자가 시종일관 유교사상의 선양에 얽매어 일반 대중에 대한 教化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것은 작가가 국가의 전통사상으로 이어지던 유교사상이 점점 쇠퇴하는 현실을 마주하여 유교사상을 선양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 V. 結 論

全稱이 《崢嶸館評定通俗演義型世言》인 《型世言》은 明末의 擬話本短篇小說集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型世言》의 作者·評者·出版年代 등에 치중되어 있어서 《型世言》의 개개작품을 분석하여 주제나 작가의 창작의도를 연구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型世言》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살핀 후 주제사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型世言》의 특색을 보았다.

《型世言》은 그 首卷의 小誌로 말미암아 作者, 評者, 출판목적 및 出版年대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每回의 回前 서문이나 回末評, 각 故事에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대략적인 것은 알 수 있다. 《型世言》은 다른 소설집과는 달리 每回 回目 다음에 “錢塘陸人龍君翼甫” “錢塘君翼陸人龍” “錢塘陸人龍” “錢塘陸君翼”이란 표기가 있어 作者는 陸人龍이며 그의 자는 君翼이다. 그리고 評者는 杭州에서 崢嶸館을 운영하고 유명한 出版家였던 陸雲龍이며, 그의 자는 雨侯, 陸人龍의 형이다. 이들 형제의 생졸년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여의고 두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回末評을 통해 알 수 있다. 陸雲龍은 어려운 집안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했지만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자 생계를 위해 出版사업에 종사하였고 나중에는 崢嶸館이라는 書房을 운영하였다. 《型世言》도 이 崢嶸館에서 출판된 것이며, 그 出版년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明代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故事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대략 1632년경에 출판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型世言》은 全편에 걸쳐

봉건시대의 정통관념인 유가사상을 선양하여 일반 대중들을 勸戒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당시 통속소설이 예전의 經書나 歷史書가 담당했던 교화작용을 대신할 수 있다는 소설이론에 영향을 받아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일시기에 출판된 “三言” “兩拍”이 유가적인 사상을 견지하면서도 당시 유행하던 진보적인 사상의 영향도 받은 것에 비해 《型世言》은 전통적인 유가사상만을 선양하고 있다.

《型世言》의 주제사상은 그 書名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型世(세상의 틀을 세운다)”로 집약될 수 있다. 따라서 《型世言》의 주제를 첫째, 세상에 모범적인 틀을 세우고 정통적인 유가사상을 선양한 인물들의 선행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善行을 권고하고자 한 것을 “勸善”, 둘째 이와는 반대로 도적, 악당, 부패한 승려, 사기꾼 등 부정적인 인물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고자 한 것을 “勸戒”,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떠도는 신기한 이야기를 통해 당시 宦官들의 전횡과 조정의 부패를 풍자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요물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異聞類”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勸善”은 다시 忠, 孝, 婦德, 義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勸戒”는 貪財, 貪色, 貪欲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型世言》은 일반 대중에 대한 교화를 강조하기 위해 종종 작가나 평자가 이야기 속에 직접 개입하여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型世言》은 “세상의 틀을 세우는 이야기(型世言)”라는 것을 제목으로 사용하여 “三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을 교화하고자 하는 작자의 집필목적은 書名에서 피력하고 있으며, 각 回目은 대구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타의 擬話本小說集과 마찬가지로

詩詞를 이용하여 인물·풍경·상황 등을 묘사하거나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 작자의 논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전의 擬話本小說集보다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型世言》의 독특한 특징인 각 회 의 回前 서문과 回末評은 總序가 소실된 《型世言》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回前 서문과 回末評은 작자 陸人龍이 각 회를 창작하고 상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형이자 출판가인 陸雲龍에게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型世言》은 또한 대부분 明代라는 특정 시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당시 사회의 모습을 진실되게 담아내고 있다. 다른 통속소설이 소설의 통속성을 중시 여겨 일반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남녀간의 애정에 관한 고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반면, 《型世言》에서는 통속성보다는 교화성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애정고사를 다룬 것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작자가 직접 개입하여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型世言》은 유교사상을 선양하여 '세상의 올바른 틀'을 세우고 당시 사회를 고발하고 비판하기 위해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型世言》은 소설이 교화작용을 담당할 수 있다는 소설이론에 입각하여 일반 대중을 교화하려고 했으며, 당시 사회를 고발하고, 주변의 일상적인 인물이나 제재를 사용하여 일반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려 했던 점에서 “三言” “兩拍”과 함께 明末의 擬話本短篇小說集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原典資料]

- (明)陸人龍 著 覃君點校,《型世言》上下2冊,北京中華書局,1993.7.
- (明)陸人龍 著 朴在淵校注,《型世言》,春川 강원대학교출판부,1993.7.
- (明)陸人龍 著,《三刻拍案驚奇》,北京 華夏出版社,1998.1.
- (明)馮夢龍 編撰,蕭欣橋·蕭尙兵 校點,《喻世明言》,上海 浙江古籍出版社,1997.4
- (明)馮夢龍 編撰,俞駕徵·鄭小軍 校點,《警世通言》,上海 浙江古籍出版社,1997.4
- (明)馮夢龍 編撰,陳慶惠 校點,《醒世恒言》,上海 浙江古籍出版社,1997.4
- (明)凌濛初 著,《初刻拍案驚奇》,北京 華夏出版社,1998.1
- (明)凌濛初 著,《二刻拍案驚奇》,北京 華夏出版社,1998.1

[單行本類]

- 김희영 편저,《이야기 중국사3》,서울 청아출판사,1996.2.(14판 발행)
- 黃仁宇 著,홍광훈·홍순도 옮김,《巨視中國史》,서울 까치글방,1997.4
- 서울대학교東洋史學研究室,《講座中國史Ⅳ - 帝國秩序의 完成》,서울 지식산업사,1998.2(초판 6쇄 발행)
- 吳金成·曹永祿·朴元燾·權重達·崔韶子,《明末·清初社會의 照

明》,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3

陳謙豫, 《中國小說理論批評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9.10

方正耀 著, 洪尙勳 譯, 《中國小說批評史略》, 서울 을유문화사, 1994. 5

李炳漢·李永朱 共編, 《中國古典文學理論批評史》,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 7

湖北省《水滸》研究會 編, 《中國古代小說理論研究》, 華中工學院出版社, 1985.6.

張少康, 《中國古代文學創作論》, 북경대학출판사, 1983.12

중국소설연구회 편, 《중국소설사의 이해》, 서울 학고방, 1994. 3

齊裕焜, 《明代小說史》, 上海 浙江古籍出版社, 1997. 6

歐陽代發, 《話本小說史》, 武漢出版社, 1997. 6(2차 인쇄)

薛亮, 《明清稀見小說匯考》, 북경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9

朴在淵, 《型世言》, 도서출판 학고방, 1995. 7

金學主, 《中國文學史》, 新雅社, 1992. 3

金學主, 《中國文學序說》, 新雅社, 1995. 2

陳玉剛, 《中國文學通史 下冊》, 北京 西苑出版社, 1996. 1

김영덕·허용구·김병수 편저, 《중국문학사》하, 서울 청년사, 1990.10

魯迅, 《中國小說史略》, 齊魯書社, 1997. 11

侯健·劉鶴齡·許自強 編著, 《文學理論百題》,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5. 12

魏崇新 主編, 《明清小說觀止》, 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8. 2

崔奉源 外, 《中國歷代小說序跋譯註》, 서울 을유문화사, 1998. 8

寧宗一 主編, 《中國小說學通論》, 合肥市 安徽教育出版社, 1995.

풍우란 저,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4. 2

[論文類]

權寧愛, <型世言研究>, 臺灣私立東吳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1993. 6

劉美原, <型世言研究>, 성심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6. 5

李炫姪, <《型世言》題材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0. 12

金孝眞, <《型世言》人物·主題·評點之研究>, 臺灣 私立輔仁大學 中國文學系 碩士論文, 1995. 7

崔亨燮, <馮夢龍 話本小說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6. 8

김소정, <《三言》의 애정관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1. 2

金敏鎬, <馮夢龍 《三言》小說研究 - 作品上의 教化性과 通俗性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0. 7

金正六, <《三言》小說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87. 9

金元東, <《三言》愛情故事의 作品 分析 - 愛情으로서의 欲求와 現實의 갈등면>,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85. 12

李載貞, <《三言》을 통해본 明末 讀書人의 社會認識>,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7. 12

崔琇景, <凌夢初의 '兩拍'研究 : 作家意識을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5. 12

방영인, <'拍案驚奇'研究 : 主題別 分析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9.

宋洞鎬, <兩拍에 對한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5. 12

許根培, <《兩拍》研究>,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1984. 12

金珍敬, <李贄의 '童心說'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5. 8

[短篇論文類]

陳慶浩, <一部佚失了四百年的短篇小說集《型世言》의 發見和研究>, 《中國文哲通信》第2卷 第4期, 1999. 2

陳慶浩, <《型世言》研究 補論>, 《中國小說研究會報》제15호, 199. 9

金榮華, <《型世言》及《三刻拍案驚奇》等書考略>, 《型世言》,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7

金榮華, <《型世言》考略補述>, 《華岡文科學報》第20期, 1995. 4

朴在淵, <韓國所見奎章閣藏本《型世言》及樂善齋藏朝譯本《型世言》>, 《型世言》,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7

朴在淵, <《型世言》연구>, 《中國學論叢》제4집, 충청중국학회, 1995.4

劉興漢, <《型世言》與“三言”的比較研究>, 《社會科學戰線》第4期, 1997

權寧愛, <《型世言》의 問題 語彙와 俗語 小考>, 《중국소설논총》第2輯, 1993.3

權寧愛, <明末 세 作家의 同一題材에 대한 形象化 樣相 - 陸人龍을 中心으로->, 《中國小說論叢》第3輯, 1994. 3

金敏鎬, <馮夢龍과 凌濛初, 그 같음과 다름>, 한국중국소설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발표회, 1999. 12

崔琇景, <明末清初 小說 形態의 變化-中篇을 中心으로>, 《중국소

설논총》第12輯, 2000. 12

金政六, <馮夢龍의 生平 및 文學觀과 情教觀>, 《中國文學研究》  
(한국중문학회), 1986

李鎭國, <馮夢龍 小說觀 研究> , 《중국어문학》(영남중국어문학  
회), 1987

趙英規, <「三言」故事의 淵源 및 影響考> , 《중국학보》(한국중  
국학회), 1980

閔惠敬, <三言의 開放性 - 禁慾에 대한 시련을 주제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第4輯, 1995. 3

齊裕焜, <明末清初時事小說述評> , 《福建師範大學學報》, 1989

陳大康, <擬話本二論>, 《文學遺產》, 1991. 2기



## 【中文抄錄】

# 《型世言》研究

济州大学校 大学院

中语中文学科

秦 恩 珠

全称《崢霄馆评定通俗演义型世言》的《型世言》是明末拟话本短篇小说集。至今，对于《型世言》的研究，多集中于它的作者、评者、出版年代的考察，但是，对这部小说主题或作者创作意图的研究并不太多。所以，首先分析这本书的主题思想，然后考察这本书的特点。

现存的《型世言》，崇祯年间刊行，共40回，每回叙述一个故事，首卷佚失了。跟其他拟话本小说集不一样的是，每回回目以后都有“钱塘陆人龙君翼甫”，“钱塘君翼陆人龙”的记载。众所周知这本书的作者是陆人龙，字君翼，钱塘人。这本书的评者是崢霄馆主人陆云龙，字雨侯，陆人龙的哥哥。他们的生卒年代不祥，可第16回的回末评告诉我们，父亲去世以后，两位母亲养教了他们兄弟姊妹。《型世言》的出版年代也不祥，因为这40回的大部分故事写的是发生在明代的故事，因此推断这本书在崇祯5年(1632)前后出版了。《型世言》的出版目的就是宣扬封建时代的正统儒家思想，劝戒一般大众。通俗小说像经书或史书一样担负着教化作用，这部小说也是受这种小说理论的影响而创作出版

的。还有，在同一时期出版的“三言”、“两拍”一面坚持儒家思想，同时又收录了大量当时流行的进步思想，但是《型世言》这本书始终一贯地坚持正统的儒家思想。

《型世言》的主题，从书名也知道，为“型世”。把《型世言》主题分为劝善类、劝戒类、异闻类三个部分。在劝善类部分，作者举出了世型，劝戒世人，也强调了忠孝节义的儒家思想。在劝戒类部分，贪财、贪色、贪欲的非道德人终究受到相应的审判，借此劝戒世人。在异闻类部分，作者用离奇的故事，讽刺当时宦官的专横和朝廷的腐败，告诉世人即使妖怪有超越能力，也不能凌驾人间。还有，《型世言》的作者，为了强调对一般大众的教化，作者直接参与故事中说教的现象也不少。

作者以“型世言”为书名，显示了教化大众的创作意图，每回的回目为对句。跟其他拟话本小说集一样，中间插入诗词，描写人物、风景、场面和登场人物的心理状态，或说明作者的观点，比以前的拟话本小说集的诗词使用有所减少。回前序文和回末评是《型世言》独特的特点之一，它为研究《型世言》提供了各种重要资料。这样的回前序文和回末评是作者陆人龙的哥哥、出版家陆云龙所作。还有，《型世言》40回的大部分故事写的是发生在明代的故事，为我们了理当时明代社会状况提供了帮助。其他通俗小说的作者重视小说的通俗性，着重描写了一般大众感兴趣的男女爱情故事，但是《型世言》更重视教化性，真正的爱情故事一个也没有，作者直抒己见的状况不少。

总之，《型世言》作为宣扬传统的儒教思想、给一般大众提示‘世型’、批判当时社会而被创作出版了。作者的创作受当时通俗小说理论的影响，要教化一般大众、揭发当时社会现实、用平凡的登场人物和题材来引起普通人的兴趣。《型世言》以这样的

特点跟“三言”、“两拍”一起，并称为代表性的明末拟话本短篇小说集。

